소년단

1963.4

우리는 1 학년생

4월 1일!

올 봄에도 우리의 즐거운 새 학년도가 찾아 왔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내려 쬐는 학교 운동장은 고운 새 옷 차림에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손에 이끌리여 처음 교문을 들어 서는 인민반 1학년 동생들, 인민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끝마치고 영예의 중학생이 된 동무들의 기쁨과 감격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마다에는 모두 오늘의 이 행복, 이 기쁨을 가져다 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공부 더 잘 할 굳은 결의가 어려 있습니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3년 4호 내용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 시절

(제 1 회)

강 효순

그림 최 순천

(1)

1924년 이른 봄 어느 날이였습니다.

동편 하늘에 붉으레한 해'발이 솟아 오를 무렵에 어린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강파로운 벼랑'길을 돌아 팔도구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검은 빛의 동근 학생모를 눌러 쓴 원수님을 앞세우고 아버지 김 형직 선생과 어머니 강 반석 녀사 그리고 철주와 영주 두 동생들과 일찍 부모를 잃고 김 형직 선생의 집에서 친아들처럼 자라던 룡호도 나루터로 나왔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의 물'줄기를 따라 이른 아침부터 긴 떼'목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떼'목 우에서 키를 잡고 있는 류벌공이 부르는 노래 소리는 아침의 맑은 공기를 헤치고 나루터에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 걸어 가지 말구 저 떼'목을 타구 가지?》 아홉 살 잡히는 동생 철주의 말이였습니다.

《떼'목은 평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의주로 가는 거야.》

원수님은 얼굴에 웃음을 띄우시고 철주의 머리를 쓸어 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가 저의 집이나?》

하고 다섯 살 잡히는 작은 동생 영주가 물었습니다.

《떼'목네 집이야 백두산이지!》

《백두산은 저쪽에 있다면서?》

하고 철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왜 자꾸만 저리루 내려 가구 있을가?》

원수님께서는 동생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알아 듣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떼'목두 왜놈들한테 끌려 가는 게다. 왜놈들은 저 떼'목들을 신의주로 끌어다가는 톱으로 켜서 제 나라루 끌어 간단다.》

하고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떼'목두 우리 편이나요?》

《우리 편이지!》

아버지는 철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모두 한동안 말 없이 떠내려 가는 떼'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떼'목두 끌려 가기 싫어서 울구 있구나!》

철주는 떼'목 키를 트느라고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떼'목이 우는 소리로 들은 모양이였습니다.

이 때에 강 건너 포삼리 나루터에서 배'사공이 노를 저어 이 편 팔도구쪽으로 와서 바위 설렁 앞에 배를 대였습니다.

《어서 떠나거라!》하며 어머니께서는 검은 보자기에 싼 작은 보따리를 원수님께 들려 주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모자를 벗어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의 머리와 등을 쓸어 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큰 사람 돼.》 하고 타일렀습니다.

룡호는 아까부터 나루터를 등지고 팔소매로 눈물과 코'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룡호두 잘 있어라. 그리구 공부를 잘해야 한다!》

원수님께서는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여도 목이 메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룡호가 헤여지기 싫어서 우는 것을 보니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원수님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고 배에 올랐습니다.

《아는 길두 물어 가랬단다. 초행'길인데 자주 길을 물어라. 아마 한 보름은 남아 걸려야 갈 게다.》

배가 떠나려고 할 때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서요. 로정기가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여러 날 동안 걸려 평양으로 가는 자세한 로정기를 그려 주었습니다. 이 로정기에는 몇 리를 가면 어떤 산이 있고 어떤 다리가 있고 어디에 가면 길이 갈라지는데 어느 편으로 가야 하며 어디는 고개가 있고 어디는 상점이 있다는 등 아주 자세한 그림이였습니다. 이런 로정기를 간사한 원수님은 초행이지만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두 만경대 할아버지네 집에 자주 찾아 가 뵈여라. 그리구 일두 도와 드리구…》

원수님은 떠나기 전에 두세 번이나 들은 말씀이여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싱긋 웃고 말았습니다.

배'사공 아저씨가 노를 바위 짬에 대고 벗 밀자 배는 선창에서 두둥실 떠났습니다. 배는 흔들거리며 물'살을 헤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루터에 서고 있는 동생들은 손을 저었습니다. 원수님께서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룡호는 말 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루'배는 강 한복판을 지났습니다.

《어디 먼 길을 떠나는 모양이구나.》 하고 배'사공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련락 임무를 받아 가지고 자주 포삼리에 건너 다니군 했습니다.

포삼리에는 김 형직 선생과 손을 잡고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김 형직 선생은 그들과 긴급히 련락할 일이 생기면 원수님을 보내시군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님은 팔도구 나루를 자주 건너 다니셨고 배'사공 아저씨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원수님이 평양까지 가신다니까 배'사공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혼자서 평양까지 간단 말이냐.》

《혼자서는 못 가나요 뭐, 입으로 물어 가면 되지요.》

《아니 그 먼 길을 혼자 가!》

《멀긴 뭐가 멀어요. 조선 땅 절반두 못 되는 걸요.》

배'사공 아저씨는 원수님을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더니

《남아 십 오 세 대장부라구, 하긴 사나이 대장부의 열통이 그만이나 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배는 어느덧 포삼리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원수님은 배에서 내리자 팔도구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그 대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들 가세요!》 하며 원수님은 모자를 벗어 들고 흔들었습니다.

《형, 잘 가라!》 하며 손을 흔드는 철주의 목소리가 뻔히 들려 왔습니다.

원수님은 선창 돌을 짚고 올라 와 다시 팔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8 년만에 다시 조국 땅을 밟으면서 중국 땅 팔도구를 바라보는 원수님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오매에도 그리던 고향 만경대를 향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만경대에는 보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며 삼촌 아버지와 삼촌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과 동무들이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원수님을 무척 반갑게 맞아 줄 것이며 원수님께서도 모두 만나면 끝없이 반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님의 가슴 속에는 고향을 찾아 간다는 기쁨보다도 서글픈 생각이 몇 배나 더 컸습니다.

(일본놈들을 우리 나라에서 내쫓구 온 가족과 이웃들이 다 같이 고향으로 돌아 간다면 얼마나 좋을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쓸쓸해졌습니다. 김 형직 선생은 놈들의 악독한 고문으로 인하여 골병이 들어 언제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원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심화와 해소로 인하여 극도로 쇠약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모들과 헤여진다는 것이 여간만 가슴 아픈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원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도 그러하셨습니다. 물론 팔도구를 떠나 만경대로 돌아 가기로 결심하던 그 날도 이런 사정을 생각치 않은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눈 앞의 일보다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이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김 형직 선생께서는 아들을 보내면서 6 년제 소학교를 졸업하고는 계속 조선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 올 것을 희망하셨으며 원수님께서도 그런 결의를 품고 떠나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길을 걸으면서 몇 번이고 팔도구 나루터를 돌아 보셨습니다. 나루터에는 가족들이 그 대로 서 있었습니다.

원수님께서 고개'마루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루터에 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감실감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은 등성이에 서서 모자를 벗어 몇 번 휘두르고 언덕길을 넘었습니다. 원수님은 언덕을 넘어 선 후에도 팔도구 뒤'산이 보이자 않을 때까지 자주 뒤를 돌아 보셨습니다.

원수님은 평상시에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또 무엇을 오래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장기나 노기를 둘 때에도 얼핏 보기에는 오래 생각하시지 않고 척척 옮겨 놓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오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수를 내다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원수님의 장기 수나 노기 수를 어지간한 어른들도 당해 내지 못 했습니다.

원수님은 언제나 책을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무들과 함께 다니며 씩씩하게 뛰놀거나 또는 일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얼핏 보면 앉아서 깊은 생각을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수님은 남달리 생각을 많이 하셨고 또 깊이 생각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원수님은 혼자서 먼 길을 걷게 되니 자연 지난 날의 가지가지의 일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원수님께서 아버지를 따라 만경대를 떠나 압록강을 건너신 것은 여섯 살 잡히던 해였습니다. 중강진을 거쳐 만주 땅에 건너 가서 처음에는 림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 형직 선생은 림강에서 《제중 병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외형상으로는 병 치료를 하면서 실속은 독립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 때는 바로 3.1 운동이 있은 직후이였습니다. 김 선생은 국내의 수 많은 사람들과 련계를 가지고 독립 운동을 하여 왔습니다. 김 선생은 매일과 같이 중강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 치료를 다니는 척하고 독립 운동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때에 중강진에서 사건이 발각되게 되자 그 화근이 림강에까지 뻗칠 기세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김 선생은 부랴부랴 팔도구로 자리를 옮기게 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때에 원수님은 왜 이사를 가는지 똑똑히 알지 못 하였을 뿐더러 병원에 찾아 오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룡호와 함께 달구지를 타고 높은 령을 넘고 구불구불 굽이를 돌아 팔도구로 이사 오던 기억이 떠오를 뿐이였습니다.

팔도구는 림강에 비해서 아주 작은 거리였습니다. 림강에서 같이 놀던 많은 동무들을 떠나는 것이 퍽 서운했습니다. 더구나 1 년 간이나 같이 학교에 다니던 동무들을 헤여지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팔도구에 와서 동무들도 사귀고 그들과 같이 다니면서 놀아 보니 림강보다도 오히려 좋은 곳이였습니다. 림강에도 동무들이 많았지만은 팔도구에는 동무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름이면 압록강에 나가서 헤염도 치고 물 싸움도 하였고 겨울이면 얼음도 지치고 눈 싸움도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여러 가지 놀음 중에서도 군대놀이를 좋아했습니다. 하기는 원수님께서만 군대놀이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조선 아이든 중국 아이든 할 것 없이 모두 군대놀이라면 좋아했습니다. 다른 놀음놀이를 하다가 싫증이 나서 어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군대놀이를 한다고 하면 돌아 가려던 아이들까지도 발'길을 돌려 한 축에 섞이였습니다.

군대놀이를 할 때에는 30~40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편을 갈라 가지고 놀았습니다. 팔도구 뒤'산이나 압록강변에서 시작해 가지고는 시내로 들어 오면서 시가전까지 합니다. 시가전을 할 때에는 거리가 떠들썩해지게 고아댔습니다. 군사놀이를 할 때에는 어른들도 나와서 팔짱을 지르고 재미 있게 구경하였습니다.

원수님께서 처음 팔도구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조선 아이들과 중국 아이들은 잘 섭슬려 놀지 않았습니다. 조선 아이들의 수효가 적은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조선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오글오글 모여서 놀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 아이들이 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뿐이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님께서는 조선 아이니 중국 아이니를 가리지 않고 함께 놀았습니다.

워낙 원수님은 중국말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학업에 언제나 최우등이였으며 체육이나 모든 예술에 모범이였기 때문에 중국 아이들도 원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자신만 중국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선 아이들도 중국 아이들과 같이 놀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원수님께서 이리로 이사 온 지 오래지 않아 벌써 그들은 함께 밀려 다니며 놀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 아이들도 차차 기를 펴게 되였으며 중국 아이들도 조선 아이들을 얕잡지 못 했습니다.

군대놀이를 할 때에도 처음에는 조선 아이들에게 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수님은 싸우는 솜씨가 대장'감이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장으로 뽑히던 아이들은 원수님을 대장으로 추천하게 되였습니다.

원수님께서 대장이 되면 언제나 그 편이 승리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편을 가를 때에도 원수님의 편으로 오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편을 가를 때에 다른 편으로 가게 되면 입술이 삐죽 나오거나 또는 군대놀이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뺑소니를 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나니 군대놀이를 하게만 되면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대장으로 뽑혔습니다.

그것은 군대놀이만이 아니였습니다. 무슨 놀음을 하거나 원수님은 언제나 도장수였습니다. 그러기에 원수님께서 어디에 가기만 하면 장수벌을 둘러싼 벌떼처럼 아이들은 원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원수님의 머리에는 동무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모두 좋은 동무들이였습니다.

(내가 떠났다는 걸 알면 모두 섭섭해 할거야.)

원수님께서는 중국을 떠나 조선으로 건너 온다는 것을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무들이 섭섭해 할 것도 생각하시였지만은 그보다도 조선 아이들이 지내 부러워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차차 따뜻해 오자 일부 조선 아이들은 팔도구 뒤'산에 올라 가서 양지쪽에 앉아서 압록강을 건너 저 멀리 조선 땅을 바라보군 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있는 동무들과 친척들 그리고 고향의 산과 들을 생각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때에는 흔히 쓸쓸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여기서 뭘 하구 있니. 내려 가서 군대놀이나 하자.》

원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팔도구에는 조선 아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학교에라도 다니는 아이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님께서 조선에 건너 가서 중학교까지 공부하고 돌아 오겠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부러워 하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그들에게 떠난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룡호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윈 룡호는 중강진 어느 려관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몸으로 그의 일은 실로 고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는 잠시도 쉴 짬이 없었습니다.

중강진에 자주 건너 가시던 김 선생은 어느 날 룡호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때 김 선생은 룡호가 고아라는 것과 그의 일이 고된 것을 알았습니다. 김 선생은 불쌍한 고아를 남의 집 머슴'군으로 내버려 두고 혼자 건너 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김 선생은 려관집 주인에게 룡호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려관집 주인은 김 선생이 어떤 어른이라는 것을 대강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지 못 했습니다.

이리하여 그 날로 룡호는 김 선생을 따라 림강으로 건너 왔던 것입니다. 그가 림강으로 온지 오래지 않아서 팔도구로 이사를 하게 되였습니다. 룡호는 팔도구에 와서 원수님과 함께 장백 현립 제서 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원수님보다 나이는 1 년 우였지만은 학년은 1 년 아래'반이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밤마다 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룡호는 아무리 애써도 원수님을 따라 갈 수 없었습니다. 원수님의 성적은 어느 과목이나 최우등이였습니다. 그러나 룡호의 성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룡호는 작문 성적이 좋지 못 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암송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작문만은 그렇지 못 했습니다.

룡호는 작문 짓는 법을 원수님께 물었습니다. 원수님께서도 다른 과목은 자세하게 배워 주면서도 작문만은 그렇게 자세하게 배워 주지 않는 것이였습니다.

《작문이야 자기 궁리로 생각해서 써야지 어떻게 배워 주겠니, 그 정말 딱한데!》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작문을 잘 지으려면 우선 책을 많이 읽고 자꾸 지어 보라는 것이였습니다. 아는 사람에

게 편지도 써 보고 일기도 쓰고 자기가 한 일과 생각한 것을 작문으로 써 보라는 것입니다. 룡호는 그렇게 해 보았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룡호는 작문 숙제를 받아 왔습니다. 룡호는 그 날 원수님께서 밖에 나가신 틈을 타서 원수님의 책궤를 열고 차곡차곡 보관해 둔 낡은 학습장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수님의 낡은 작문 학습장에서 같은 제목의 작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손으로 궁둥이를 툭 치며 기뻐했습니다. 룡호는 원수님께서 작년에 지어서 최우등 점수를 받은 작문을 자기 작문 학습장에 옮겨 썼습니다. 그것을 선생님께 낸 룡호는 처음으로 작문에 최우등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날 룡호는 학교에서 돌아 오자'바람으로 원수님 앞에 작문 점수 맞은 것을 보였습니다.

《어때? 이만 했으면 됐지!》하며 노상 으시댔습니다.

《야! 너 아주 대단해졌구나. 그렇게 잘 지으면서 만날 나 보구 배워 달라구 그러댔니?》

원수님께서도 매우 반가와 했습니다.

《읽어 봐라, 이건 내 점수가 아니라 네 점수야!》하며 룡호는 코'살을 찡긋했습니다.

《내 점수?》

원수님은 작문 학습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한두 줄 읽어 내려 가던 원수님은 픽 웃으면서 룡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룡호는 별로 잘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의 머리에는 며칠 전에 룡호가 도화를 그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때도 룡호는 도화를 그리다 말고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도화책 우에다 도화 용지를 놓더니 창문에 척 비추어 놓고 대구 그리는 것이였습니다. 그 때는 그저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문까지 보고 썼으니 이 기회에 이야기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웃는 얼굴로 룡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공부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점수나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남의 작문을 보고 써다가 점수나 잘 받아서 뭘 하겠니. 그건 우선 자기를 속이는거구 선생님을 속이는거야. 요전에 도화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구 생각해! 어때 룡호 생각에는?》

원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 룡호는 얼굴이 발개졌습니다. 원수님께서도 룡호가 장난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난에 재미를 붙이면 나중에는 버릇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일렀던 것입니다.

그 후 룡호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해 진급 시험에서부터 우등, 최우등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학습을 할 때에나 놀러 다닐 때에 언제나 쌍오리처럼 같이 다녔습니다. 팔도구에 사는 사람들은 룡호를 한 집안 식구로 알았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룡호의 학습을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헤여지게 되니 더 도와 주지 못한 것이 후회되였습니다. (아직도 나루터에서 울고 있지나 않겠는지.)

이렇게 생각하며 원수님께서는 팔도구 쪽을 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팔도구 뒤'산도 보이지 않게 된 지 오랬습니다.

걸을수록 집의 생각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집을 떠나게 되니 어머니가 무척 걱정되였습니다. 어머니는 신병이 중한데다가 매일처럼 손님들이 많아서 일이 고되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일을 많이 도와 드렸습니다. 압록강'가에 나가 놀다가도 돌아 올 때는 언제나 나무'가지라도 들고 들어 왔습니다. 원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철주도 어디서 놀다가 나무'가지가 보이면 꼭 가져다가 어머니께 드리군 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어머니께서 힘 들어 하는 것을 보고 물도 길어다 주고 부엌으로 나무를 껴들이는 일도 도와 드렸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도 많이 도와 드렸습니다. 팔도구로 이사를 온 후부터 원수님께서는 자기네 집에 찾아 오는 분들이 어떤 어른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츰 커 가면서부터 원수님께서는 독립운동을 위하여 찾아 오는 손님은 곧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손님들이 오면 원수님께서는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동무들과 함께 장난을 벌려 놓는 것입니다. 동무들과 함께 죽 둘러 서고 제기를 차기도 하고 혼자일 때에는 팽이를 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때에는 놀음 노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였습니다. 순사 나부랭이나 놈들의 앞잡이들이나 또는 수상한 사람이 오지나 않나 하고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낯 모를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원수님은 안으로 뛰여 들어 가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 병 보이러 손님이 오서요.》

하고 고함칩니다. 이것이 낯 선 사람이 온다는 암호였습니다.

안에서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런 신호를 받으면 김 선생은 곧 태연하게 병 치료를 하는 척 했습니다.

이 때 김 선생 댁에는 많은 손님이 왔는데 와서 그 날로 돌아 가는 분들도 있었지만 여러 날을 묵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날로 돌아 가는 분들에게도 꼭 음식을 대접해 보냈습니다.

김 선생 댁 바루 곁에는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그 날로 돌아 가는 손님들에게는 흔히 국수를 사다 대접했습니다. 국수는 언제나 원수님께서 사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국수를 사러 보낼 때도 있었으나 원수님은 한 번도 싫어하는 눈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무시고 가는 손님들에게 아침 세수'물과 양치 소금은 언제나 원수님께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수건을 들고 손님이 세수하는 곁에 서고 있다가 손님이 세수를 끝내면 곧 수건을 드리고 세수'물을 도랑에 버리군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진지상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진지상은 언제나 원수님께서 받아 드렸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진지상을 받아 가지고 와서는 무릎을 꿇고 손님이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자기 집에 찾아 오는 손님들에게 언제나 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마음 속으로 존경했습니다.

(저 분들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친부모와 같이 생각되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자기도 어서 커서 어른이 되여 아버지나 그분들처럼 우리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리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을 그처럼 도와 드리다가 갑자기 집을 떠나게 되니 어쩐지 가슴 한 구석에 무엇이 걸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룡호도 무척 부지런해서 집의 일을 넉넉히 도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은 물론이고 어머니께서도 룡호가 일'감을 손에 드는 것을 극력 못 하게 하였습니다.

《룡호야! 우리가 너를 데려 온 것이 그런 심부름이나 시키려구 데려 온 줄 아느냐. 어서 공부나 해라.》

룡호가 마당'비라도 들면 꼭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였습니다. 때문에 룡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을 속여 가며 잔'일이나마 거들어 주었습니다.

(눈치 빠른 룡호니까 어쨌거나 집'일을 도와 드릴거야. 그리고 철주두 차차 아버지, 어머니의 일을 도와 드리게 되겠지!)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때에 맞은 편에서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로인이 이리로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와서 약 값을 받으라거니 아버지는 안 받겠다거니 하시면서 싱갱이질을 하던 로인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고 원수님께서 모자를 벗어 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로인은 곧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인지 눈을 껌벅이며 원수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시더니

《오! 강 건너 병원 집 아들이로구만!》 하며 매우 반가와 하는 것이였습니다.

(전 호의 계속)

왜놈 군대에 끌려 온 첫날 밤 정해는 병영 안의 창고 속에 갇히였다. 그는 캄캄한 창고 안에서 손더듬으로 가마니와 널조각을 끌어 모아 놓고 거기에 쓰러졌다. 온 몸이 곧아 들어 어쩔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쌓인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 오는듯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신만은 말똥말똥 되살아나 낮에 겪은 일들이 그 대로 떠올랐다.

(칠성이는 무사히 갔을가? 지금은 어디쯤 갔을가?)

이튿날 아침 정해는 어제 그《오장》놈한테 불리여 자그마한 방에 끌려 나갔다.

방안에는 족제비 수염을 기른 중대장놈이 독사눈을 하고 정해를 쏘아 보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놈입니다.》《오장》놈은 차렷 자세를 하고 웨치듯 말했다. 《족제비 수염》은 가볍게 찰웃음을 짓더니 꽥 소리를 질렀다.

《이 놈아 어디로 가댔어?》

정해는 부러 울멍울멍하면서 손을 삭삭 비볐다.

《배가 고파서 얻어 먹으러 다닙니다.》

《지하족은 어디서 났어? 그래두 빨찌산을 몰라? 네가 빨찌산의 앞잡이라는 걸 다 안다. 이 놈!》

표독스러운 눈으로 정해를 노려 보던 중대장놈은 손끝으로 정해의 턱을 치받치고는 너털웃음을 쳤다.

(그 때 지하족은 인민들의 손을 거쳐 빨찌산으로 들어 간다고 보통 사람은 신지 못 하게 했다.)

정해는 순간 가슴이 철썩 내려 앉았으나 부러 태연하려 했다.

《이건 마을에 다니다가 길'가에 누가 버린 것을 신고 왔어요.》

《거짓말 말아!》

《족제비 수염》은 화가 꼭두까지 뻗쳐 총을 빼들고 정해의 이마에 댔다.

《주었다는데요.》

《이 놈 본때를 좀 보여야지.》

중대장놈은 권총을 도로 주머니에 꽂아 넣더니 벽에 걸려 있던 길다란 격검채(참대로 칼처럼 길다랗게 만든 것)를 와락 끌어 당겼다. 그리고는 사정 없이 후려 갈겼다. 격검채는 인차 동강이 났다. 《족제비 수염》은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 오른 얼굴을 문지르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악독한 놈이다. 말이 나올 때까지 족쳐라.》

《네!》하고 이번에는 《오장》놈이 달려 들었다. 정해는 어깨'죽지며 허리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으스름 달'빛이 희미하게 쇠창'살 구멍으로 스며 드는 창고 안이였다. 정해는 몸을 움직여 보려 했으나 도무지 옴짝할 수가 없었다.

환히 비쳐드는 보름'달을 바라 보는 순간 그는 금시에 아픈 것이 사라지고 샘물을 마신듯 몸과 마음이 새로와지는 것 같았다.

(칠성아, 무사히 닿았느냐? 난 갇힌 몸이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을테다.)

놈들은 그 후에도 몇 차례나 정해를 끌어 내다 갖은 고문을 다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해는 모른다고 버티였다. 놈들은 기진해서인지, 정해에게서는 더 알아 볼게 없겠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만 단념해 버리고 말았다. 오히려 중대장놈은 정해가 일본말도 잘 하고 사람됨이 똑똑한 것을 보고 자기의 시종'군으로 쓸 것을 꿈꾸게까지 되였다. 사실 그 놈은 정해가 신은 지하족에 잔뜩 의심을 품고 그랬으나 그가 조금도 굴함 없이 버티는 통에 그만 수그려 들고 말았던 것이다.

정해가 붙들려 들어 간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였다. 중대장놈은 정해를 부르더니 《오장》놈을 시켜 고루뎅 양복과 고무신을 내놓으며 말하는 것이였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빨리 옷을 갈아 입어…》

정해는 의아한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그런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옷과 신발을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나리님 고맙습니다.》하고 굽신 절을 하고 나왔다.

이리하여 정해는 중대장놈의 시종'군이 되였다. 정해는 중대장놈의 장화를 닦아 주고 세수'물을 떠다 섬기고 발을 씻어 주어야 했다. 구역질이 났지만 꾹 참고 견디였다. 때로는 동무들이 자기를 보면 왜놈의 개가 됐다고 손'가락질하지나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끼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그는 입술을 깨물고 혼자 마음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는 아동단원이다. 나의 가슴은 붉은 피로 끓고 있다. 반드시 아동단원의 영예를 빛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러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이 날은 놈들의 상부에서 우두머리가 내려 와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중대장놈은 술이 얼근해서 정해를 불러 돈 20 전을 던져 주면서 담배를 사 오라는 것이였다.

정해는 방'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어 쥐고 돌아 서 나왔다. 밖으로 나오다 문득 그는 아래'방 벽에 걸린 권총집을 보았다. 순간 정해의 머리에는 피뜩 그 무엇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밖으로 나와 몇 발'자국 걷던 정해는 우뚝 말뚝처럼 서 버렸다.

(그렇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빨찌산으로 가야 한다.)

정해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휙 돌아섰다. 그는 쏜살 같이 자기의 숙소인 창고로 달려 가 간직해 두었던 지하족을 꺼내 신었다. 그리고는 어둠을 뚫고 살금살금 중대장실로 다가 갔다. 중대장실에서는 술 취한 놈들이 노래를 한다, 손'벽을 친다 야단 법석이였다. (옳지 됐구나.) 정해는 발'자국 소리를 죽여 날째게 방안에 들어 가서 벽에 걸려 있는 권총을 낚아 채 가지고 나왔다. 그는 권총집을 풀밭에 던지고는 권총만을 허리춤에 꽂았다.

어쩐지 가슴이 들먹거려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래'배에 꾹 힘을 주고는 태연스레 걸었다. 정문 보초막이 가까와 오자 그는 일부러 물 웅덩이를 밟아 지

하촉에 흙투성이를 해 가지고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불렀다. 보초놈이 의심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어데로 가는 거야?》

보초놈이 꽥 소리 질렀다. 정해는 대답 대신 손'바닥을 펴 돈 20 전을 보이며 담배를 피우는 시늉을 했다.

《누가?》

《중대장이 시켜요.》

보초놈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감쪽같이 보초선을 빠져 나온 정해는 그 길로 가게'방에 가서 담배와 성냥을 샀다. 그는 담배를 척 한 대 꼬나 물었다. 그것은 혹 순찰병들에게 들키우거나 해도 딴 사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정해가 마을을 빠지려 할 때였다.

난 데 없는 그림자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순찰병이였다.

《어딜 가?》

《네…저…》

《어딜 가냐 말야?》

그 놈은 위협하느라고 철커덕하고 격발기를 당겼다. 정해는 엉겹'결에 한 걸음 물러 섰다.

《저—저녁 먹고 산보하던 중입니다.》

《무엇이? 여기가 어디라고 산보를 해? 돌아 섯!》

그 놈은 총끝으로 정해의 가슴팍을 밀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였다. 정해는 돌아 서는 척 하다가 날쌔게 그 놈의 총을 탁 쳤다. 별안간 쾅! 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꼬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 가더니 총이 툴렁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그 사이에 정해는 번개처럼 내달았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요란히 울려 왔다. 순찰병들이 추격해 왔다.

정해는 어둠 속을 헤치고 뛰고 또 뛰였다. 숨이 하늘에 닿았다. 그는 엎어졌다가는 다시 일어 나 뛰였다. 기를 쓰고 산을 올리 뛰고 내리 뛰였다. 얼마나 뛰였는지 이제는 놈들의 추격도 뜸해졌다. 캄캄한 숲 속으로 사라진 그를 찾아 낼 리 없었다.

이리하여 정해는 밤낮 꼬박 사흘만에 끝내 부대로 돌아 올 수 있었다. 부대에서는 그의 용감성을 높이 평가해 주었다.

정해가 빨찌산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켰고 왜놈 군대 중대장놈의 권총까지 빼앗아 가지고 온 이야기는 순식간에 아동단원들 속에 퍼졌다. 그러나 정해는 조금도 자만하지 않았다. 정해의 이러한 행동은 아동단원들 속에서 훌륭한 모범으로 되였다.

그 후 정해는 곧 공청에 가입하게 되였고 청년 의용군에 들어 갔다. 청년 의용군은 적후에 들어가 정찰도 했고 빨찌산의 물자를 운반하는 일도 하였다.

여기서도 그는 공청의 위임에 충실했다. 그는 드디여 영예롭게도 빨찌산에 들어가게 되였다. 그 때 그의 나이는 열여덟 살이였다.

빨찌산에 들어 가 처음으로 총을 받던 날 그는 그렇게도 바라마지 않던 김 일성 원수님의 자랑찬 전사가 된 기쁨으로 하여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는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조국과 혁명 앞에 충실하리라고 다짐하였다.

(아! 어머니와 누나가 이 모습을 보았으면…그렇다! 나는 이 원쑤를 갚아야 한다.)

그는 총을 으스러지게 틀어 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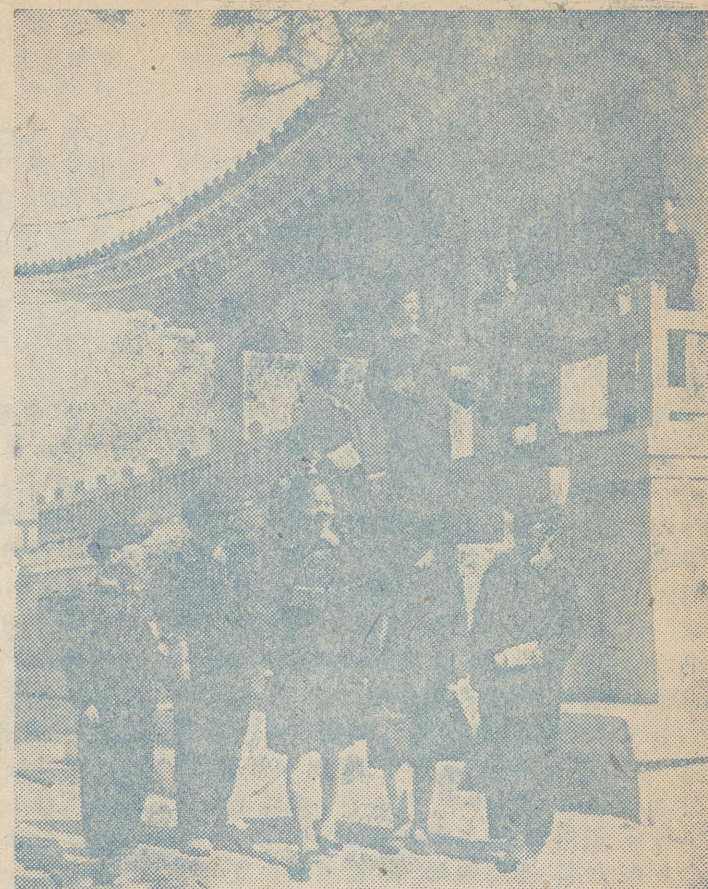
빨찌산에 입대한 후 정해는 용감하게 싸웠다.

1935년, 영예스럽게도 그는 오매에도 그리던 김 일성 원수님을 뵈옵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침내 김 일성 원수님의 호위병의 영예까지 지니게 되였다.

그 후 정해는 1937년 6월 간삼봉 전투를 비롯하여 1938년 3월 화전현 한량거우 전투 등 수 많은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다가 1941년 봄 그는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 하고 그렇게도 그리던 조국 땅을 밟아 보지 못 하고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던 것이다.

그는 비록 떠났으나 그의 혁명 정신은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에 살아 있으며 우리를 새로운 승리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끝)

—《모범 소년단》인 평양 만경대 중학교 단에서—

조 병 권　　　사진 촬영 김 창 규

2월도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만경대 중학교 단에서는 경사가 났다. 영예롭게도 민청 중앙 위원회로부터 《모범 소년단》 칭호가 수여된 것이다. 수여식이 끝나자 소년단원들은 만경봉에 올랐다. 양지쪽의 새 싹들도 이들의 기쁨을 축하하는듯 푸른 머리를 갸웃하고 방긋방긋 웃는 것만 같았다. 모범 소년단 기'발을 휘날리며 만경봉으로 오르는 이들의 가슴은 기쁨과 영예로 하여 더욱 부풀어 올랐다.

《얘, 우린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받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분단을 다 최우등 분단으로 만들자!》

《그래, 소년단 생활두 더 잘 해서 모범 소년단의 영예를 더욱 빛내자.》

이렇게 주고 받는 소년단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과 새 결의가 어려 있었다.

《김 일성 원수님, 우리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 학교를 모범 소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자랑을 더욱 빛내이겠습니다.》

지척에 보이는 평양을 바라 보며 이렇게 마음 속으로 다짐하는 단 위원장 전 경순의 가슴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에 설레였다.

원수님이 주신 말씀

1961년 4월 29일, 이 학교를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이 학교의 여러 분단이 모범 분단 칭호를 수여 받은데 대해 치하해 주시고 나서 그러나 모범 분단만 가지고

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학습을 잘 하고 소년단 생활을 잘 하여 학교가 모범 소년단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원수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은 집에서는 동생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하며 학교에 오면 동무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동무가 앓으면 자기도 아파하고, 조직을 사랑하게 되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며,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사랑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은 어렸을 때부터 로동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원수님께서는 로동을 하지 않으면 기생충과 같은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하시면서 원수님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 오시면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 나무도 해 오고 물도 길어 들이시군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원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몸을 단련하여 자기의 체력을 튼튼히 하며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 명랑한 소년단원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틑날 단 위원회는 단 총회를 열고 《원수님의 가르침 대로 학교를 모범 소년단으로 만들자!》 라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단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분단들에서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가지고 학습도 하고 모임도 가지였다. 소년단원들은 저마다 《붉은 마음 수첩》을 만들고 거기에 원수님의 교시를 써 가지고 다니면서 원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였다. 소년단원들 속에서는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그를 훌륭히 수행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수 없이 꽃피여 났다.

두 다리가 불구자인 송 치성 동무를 학교에 오갈 때마다 업고 다니는 손 명찬, 리 병남 동무들의 뜨거운 동지애, 밤 10시 송산 정류소에서 장 정화란 딸 이름만을 알고 주소도, 반도 모르는 한 할머니를 도와 252 호만에 집을 찾아 준 고 정옥, 김 신복, 양 옥자 동무들의 아름다운 행동, 거리에서 얻은 물건을 돌려 주기 위해 골목마다 광고를 써 붙여 주인을 찾아 준 전 경순 동무의 정직한 행동…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기에다 적을 수는 없다.

단 벽보 편집 위원회와 각 분단 벽보 편집 위원회들에서는 벽보에 《원수님의 가르침 받들고》 라는 재 란을 만들어 놓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 주었다.

첫 봉화

단 위원회는 모범 분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분단이 다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잘 하여 학교가 모범 소년단이 되여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래서 단 위원회는 제 5 분단에 나가 분단 사업을 도와 주면서 원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서 첫 봉화를 올리도록 지도해 주었다.

제 5 분단에서는 먼저 학교를 깨끗이 꾸리는 일을 통하여 소년단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그들은 원수님의 본가에 가서 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쓰시던 책상을 보고 돌아 와서 《칼'자국 하나 없는 책상》이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가지였다. 동무들은 저마다 책상에 칼'자국, 연필'자국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잉크 한 방울 떨구지 않고 책상을 깨끗이 쓰신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받아 자기들도 책상을 깨끗이 거두자고 토론했다.

다음 날 동무들은 자기들이 칼로 금을 긋고 구멍을 뚫고 했던 자국을 대패로 밀고 나무를 깎아서 메꾸고 곱게 니스칠까지 했다. 교실 바닥은 유리알처럼 반짝거렸다. 화분도 가져다 놓고 어항도 사다 놓아서 교실은 더 아름답게 꾸려졌다.

단 위원회는 각 분단들에서 5 분단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5 분단 교실 견학을 조직했다. 그리고 분단들에서 《5 분단의 모범을 본받자!》 라는 제목으로 분단 모임을 가지도록 지도했다. 이리하여 전체 분단들이 교실을 꾸리는 일에 나섰다. 5 분단은 가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장난이 심하여 학교에서도 책상을 제일 심하게 더럽힌 11 분단 동무들에게 자기들의 교실을 내 주고 그리로 옮겨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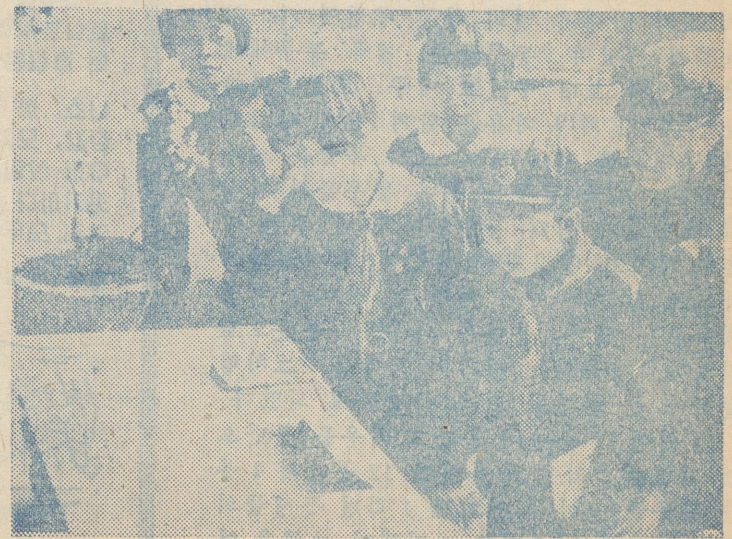
이렇게 되자 11 분단 동무들도 아름답게 꾸린 교실이 생겼다고 그저 좋아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인민반 교실을 우리들이 맡자.》고 하면서 인민반 1 학년 교실을 맡아 나섰다. 그러자 다른 분단들도 인민반의 다른 학급들을 도와 나섰다. 이렇게 하여 전체 교실이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꾸려졌다.

5 분단이 올린 봉화는 새롭게 발전하여 나갔다. 그 해 가을 어느 일요일 4 분단 동무들은 룡악산에 가서 80 여 그루의 진달래를 떠 가지고 와서 학교 주위에 심어 놓았다. 단 위원회는 《진달래와 더불어 붉게 필 4 분단 동무들의 붉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학교를 아름답게 꾸리려는 4 분단 동무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단 벽보에 커다랗게 내여 지지해 주었다. 각 분단들에서 이 모범을 본받아 떨쳐 나섰다. 학교는 각종 꽃나무와 과실나무로 뒤덮였다. 이듬해 봄 단 위원회는 각 분단들에서 활짝 피여난 꽃밭에 와서 《로동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로동의 귀중한 열매》 등의 제목으로 모임을 가지도록 지도했다. 이리하여 로동의 귀중함을 깊이 깨달은 소년단원들은 보다 아름다와질 앞날을 그리며 만경봉에 2,000 여 그루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를 떠다 옮기고 그것을 정성들여 가꾸었다.

늘어 가는 최우등 분단

단 위원회는 모든 동무들이 공부를 잘 하여 계속 우등, 최우등을 해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최우등 분단을 만들어 내는 사업에 나섰다. 단 위원회는 먼저 매 분단에서 소년단원들의 학습 생활을 알아 보고 학습에서 부족점을 고치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장난에만 정신이 팔려 복습을 잘 하지 않는 동무들이 많다는 제 8 분단에는 《그날 배운 것은 그날에》, 공부를 하며 딴며 하는 동무들이 있는 제 10 분단에는 《배움이 천리'길》, 수업 시간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는 분단에는 《김 일성 원수님은 어린 시절에 수업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였는가》, 글을 외우기만 하고 배운 지식을 생활에서 리용할 줄 모르는 분단에는 《가시는 데마다 〈교실〉을》 등 제목을 주어서 김 일성 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공부하셨는가를 배우며 본받도록 하는 일을 조직해 주었다. 이리하여 소년단원들의 학습 열의는 높아지게 되였고 모든 동무들이 숙제 공부를 빠짐 없이 해오고 45 분 수업 시간을 귀중히 여기며 배운 지식을 생활에 옮기려는 좋은 학습 기풍이 서게 되였다.

단 위원회는 《어린 식물학자들의 모임》, 《창작품 발표회》, 《미술 작품 전람회》 등을 자주 조직하여 연구 소조의 활동을 높여 주었고 배운 지식을 넓혀 나가도록 도와 주는 일을 자주 조직해 주었다.

한편 단 위원들은 분단에 직접 내려 가 분단 동무들의 학습 정형을 알아 보고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여 학습에 뒤떨어진 동무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조직해 주었다.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배우며 본 받는 만경대 중학교 동무들

6 분단에 내려 간 단 위원들은 최 순덕 동무가 식물 학습에 취미를 갖지 못 하고 있어 식물 학습이 다른 과목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분단 과학 이야기 모임을 조직하고 순덕 동무에게 《종자의 발아에 필요한 조건》을 연구하여 발표하도록 과업을 주었다. 그리고 분단 위원회는 공부를 잘 하는 황은숙, 박 경숙 동무들에게 순덕 동무가 과학 이야기 모임에서 훌륭히 발표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 주게 했다. 은숙 동무와 경숙 동무는 순덕 동무네 집에 찾아 가서 발아 실험을 하면서 그의 토론을 준비시켰다. 모임 날 순덕 동무는 자기가 실험을 통해 발아시킨 종자를 동무들 앞에 가지고 나와 종자가 싹트기 위해서는 수분, 공기, 알맞는 온도 등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기가 실험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훌륭히 설명했다. 선생님은 순덕 동무를 높이 칭찬했다. 순덕 동무는 이 때부터 식물 과목에 자신심을 갖게 되였다.

서로 학습을 돕고 이끄는 사업에서 동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지고 또 동무들은 분단을 더 사랑하게 되였다. 지난 날처럼 저 혼자만 공부를 잘 하여 좋은 성적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던 동무들도 없어지게 되였다.

박 경옥 동무가 전쟁 시기 상한 발을 치료 받기 위해서 멀리 함흥 병원에 가 입원하게 되였다. 동무들은 경옥 동무에게 책도 사서 보내 주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 주일 간 배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우편으로 보내 주어 그의 복습을 도와 주었다. 경옥 동무는 분단 동무들의 지성에 보답하기 위해 동무들이 보내 주는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학습했다. 3 개월만에 학교로 온 경옥이는 학기 말 시험을 쳐서 최우등을 했다. 분단은 최우등 분단으로 되였다. 경옥이는 자기의 학습을 그처럼 돌보아 준 분단을 더욱 사랑하게 되였다.

뒤'이어 12 분단, 4 분단도 최우등 분단으로 되였다. 최우등 분단인 12 분단과 4 분단 동무들은 다시 인민반 1 학년 동생들의 학습을 도와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인민반 1 학년 3 반과 4 반에 내려 가서 어린 동생들의 학습장에 줄'간도 쳐주고 연필 쓰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워하는 산수 공부도 도와 주고 국어 읽기와 받아 쓰기도 시키면서 친 형처럼 친절히 도와 주었다. 선생님의 가르침과 12 분단과 4 분단 동무들의 도움으로 인민반 1 학년 3 반과 4 반도 최우등반으로 되였다.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능숙히 다루게 되였고 모두가 인민 체력 검정 소년급에 합격하여 씩씩하고 명랑한 소년단원으로 자라 났다.

이리하여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12 개의 분단이 모두 영예의 모범 분단 칭호를 수여 받게 되였다.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2 년, 마침내 학교는 《모범 소년단》의 영예를 지니게 된 것이다.

(동시)

역삼 심어요

따스한 이른 봄날 노래 부르며
우리 분단 동무들 역삼 심어요
우리 살림 늘어 갈 그 날을 생각하며
길'가에도 공지에도 정성 들여 심어요.

온 여름 싱싱히 자라나
주렁주렁 올 가을에 열매 맺으면
토실토실 여문 씨론 기름을 짜고
대 껍질은 벗기여 천도 짜겠지.

니스, 물'감, 가축 사료, 비누도 만들고
장갑, 모자, 방수포, 그물도 짤터이니
우리 살림 또 얼마나 좋아질가
포기마다 정성담아 더 잘 심고 가꾸자
우리 모두 다짐하며 역삼 심어요.

황남 벽성군 벽성 공업 학교 김 창국

분단 위원장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평양시 문수 중학교 리 규동무에 대한 이야기—

최 죽산　　　그림 윤 영 자

축 구 공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리 규는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가 앉았다.

리 규의 머리 속에는 오늘 낮에 있은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분단 위원장이면 단가! 나도 다 알어!》

밀치락거리며 장난질하다 책상다리를 부러뜨려 놓은 병욱이가 잘 못을 타이르는 그에게 내뱉는 말이였다. 사실 학교적으로 출석률과 학업 성적이 제일 뒤떨어진 데다 말썽을 부리는 병욱이랑 몇몇 동무들은 걸핏하면 엇서기가 일수였다. 게다가 누구 하나 이런 동무들을 도와 주려고 나서는 일도 없었다.

(나까지 그런 동무들을 도와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45 명이 서로 이끌고 돕고 해서 단합된 분단으로, 우등, 최우등 분단으로 만들어야 할 임무가 나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리 규의 눈 앞에는 모범 분단 기'발을 휘날리면서 노래 부르며 씩씩하게 나가는 분단 동무들의 얼굴들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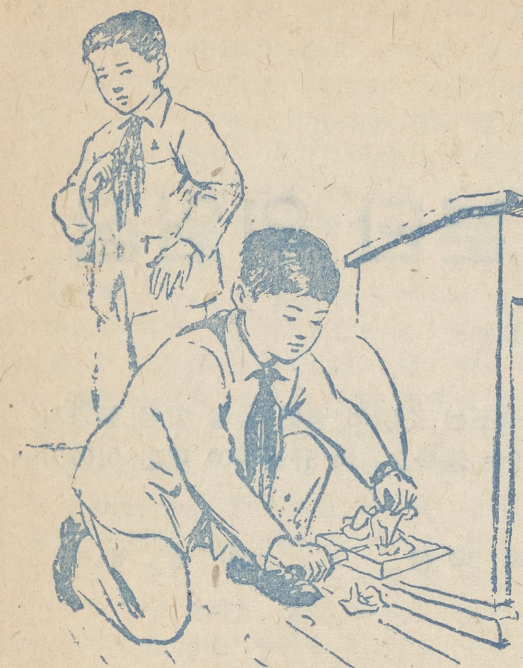
(병욱이부터 돕자.) 리 규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병욱이는 분단에서 말썽을 부리는 봉택, 병수, 광수, 세철 등 동무들을 쥐락펴락하는 아이였다. 때문에 병욱이를 돕는다는 것은 그와 한 패인 다른 동무들도 옳은 길로 이끄는 련줄로 되는 것이였다.

다음 날 아침부터 리 규는 누구보다 일찍 학교에 나와 교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유리도 닦았다. 그리고 휴식 시간마다 먼저 비를 들고 교실과 복도를 쓸기도 했다. (자신이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였다.)

리 규는 병욱의 책상 곁을 지나다가 그의 책상 밑에서 코푼 종이들과 연필을 되는 대로 깎아 버린 것을 주어다 버리였고 그가 책상, 걸상을 못 쓰게 만들어도 말없이 고쳐 주었다. 차츰 이런 일을 알게 된 병욱이는 전과 다름 없이 말썽은 부렸으나 리 규가 무슨 말을 하면 어딘가 엇서는 일은 적어져 갔다.

병욱의 마음을 짐작한 리 규는 매일 아침 병욱이와 함께 학교에 오면서 아동단원들의 투쟁 이야기, 《소년단》이나 《아동문학》에서 본 소설, 《흥미 있는 문제 풀이》에서 읽은 과학 이야기 등을 재미나게 해 주면서 그와 친해지기에 힘썼다.

그런데 하루는 병욱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 갔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봉택이도 머리가 아프다고 집으로 갔다. 학습을 마친 리 규는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아서 병욱이네 집으로 갔다.

아니나 다를가 병욱이와 봉택은 모란봉

경기장에 구경 가고 없었다.

(옳아, 애들이 경기장에 가자고 그랬구나.) 리 규는 그들이 체육을 즐긴다는 것은 알았으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까지 경기장에 가리라고는 생각지 못 했다. 리 규는 어떻게 하면 바로 잡아 줄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체육관에 다니시는 아버지가 축구공 하나를 사 오셨다. 리 규의 기쁨은 컸다. 그는 이 축구공을 가지고 축구를 즐겨하는 병욱이를 이끌어 보리라 결심하였다.

그는 분단 축구팀을 조직할 것을 분단 위원들과 의논했다. 분단 위원들도 모두 찬성이였다. 주장으로는 공을 제일 잘 차는 병욱이를 시켰다. 리 규는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체육 명수 선생들의 도움을 받아 분단 축구팀이 학교적으로도 가장 쎈 축구팀이 되게 하리라 작정하였다. 분단에서는 방과 후면 날마다 달리기 운동과 뽈차기가 진행되였다. 이러자 병욱이는 차츰 학교에 흥미를 느끼게 되였고 결석과 지각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되였다.

그 후 학교에서는 체육 대회가 벌어지게 되였다. 리 규는 학교 체육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을 데리고 체육관으로 갔다.

《아버지, 이 애가 우리 분단의 축구 주장이예요.》

《응, 그러면 네가 병욱이냐?》

《…》

병욱이는 리 규의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알며 공 잘 차는 아이라고 머리까지 쓰다듬어 주는 것이 한편 의아하기도 했고 또 한편 기쁘기도 했다. 이 날 동무들은 리 규의 아버지와 체육 명수들로부터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은 후 실지 공 차는 련습도 했다.

체육 대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였다.

어쩐 일인지 점심 먹으려 간 병욱이가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 리 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병욱이네 집으로 뛰여갔다. (갑자기 어디 앓지나 않을가?) 이런 생각을 하며 그의 집에 찾아 가니 그는 어디 갔는지 없었다. 책상 우에는 무엇인가 만들다가 내버려 둔 채 놓여 있었다. 그것은 고성기였다.

《오빠가 다치지 말라고 했어요. 납이 없어 납 얻으려 나갔어요.》 병욱의 누이동생이 말했다.

(옳지, 병욱이가 이런 재간도 있었구나.) 그렇지만 리 규는 집단의 영예를 망그치는 병욱이가 괘씸하게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도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 그는 인차 마음을 고쳐 먹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납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하고 급히 달려 갔다.

리 규가 납을 가지고 왔을 때까지도 병욱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리 규는 옆에 있는 부속품들을 들고 부엌에 나가 가동철편에 진동축을 납땜질했다. 수리한 고성기에 스위치를 넣었을 때 병욱이가 들어 왔다.

《네가 만든 거냐? 소리가 참 잘 나누나!》 고성기에서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흘러 나왔다. 병욱이는 말 없이 머리를 숙였다.

병욱이는 며칠 전부터 대신 중학교에 다니는 길훈에게 고성기를 만들어 주고 앙고라 토끼 한 마리를 가지기로 약속하였었다. 그런데 약속한 오늘까지 부속품들은 모두 만들었으나 납이 없어 가동 철편에 진동축을 붙이지 못해 안타까와 하던 중 마침 옆집 할머니가 집에 납'덩이가 있으니 가져다 쓰라고 하는 바람에 얼른 고성기를 만들어 놓고 학교에 갈 생각을 했던 것이다.

《미안하게 됐어, 곧 가려고 했는데 그만…》

병욱이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홍당무가 된 얼굴로 리 규가 주는 고성기를 받아 들었다.

드디여 학교 체육 대회가 열렸다. 병욱이는 5 번을 섰다. 그는 15 분 만에 동무들이 련락해 주는 뽈을 재치있게 받아 꼴 하나를 넣었다.

《병욱이 잘 한다!》 분단 동무들의 응원하는 소리를 듣는 병욱이는 코'등이 찡해왔다. 축구가 승리로 끝났을 때 리 규는 먼저 뛰여 나가 병욱이에게 꽂다발을 안겼다.

말 없이 리 규의 손을 꽉 쥐고 흔드는 병욱이의 두 눈에는 감격의 이슬이 맺혀 있었다.

다섯 개의 빠나나

분단은 점점 단합되여 갔다. 이제는 결석하는 동무들과 말썽을 부리는 동무들도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 학과 성적은 좀처럼 올라 가지 않았다. 아직도 대원이를 비롯한 몇몇 동무들은 분수 문제조차 잘 모르는 형편이였다.

리 규는 분단 열성자들과 분단의 학과 성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했으나 그 누구도 분수조차 모르는 대원이를 맡아서 도와 주겠다고 나서는 동무는 없었다. 그리하여 리 규가 대원이를 맡았다. 그는 대원이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생각 나지 않았다. 리 규는 매일 저녁 대원이네 집에 찾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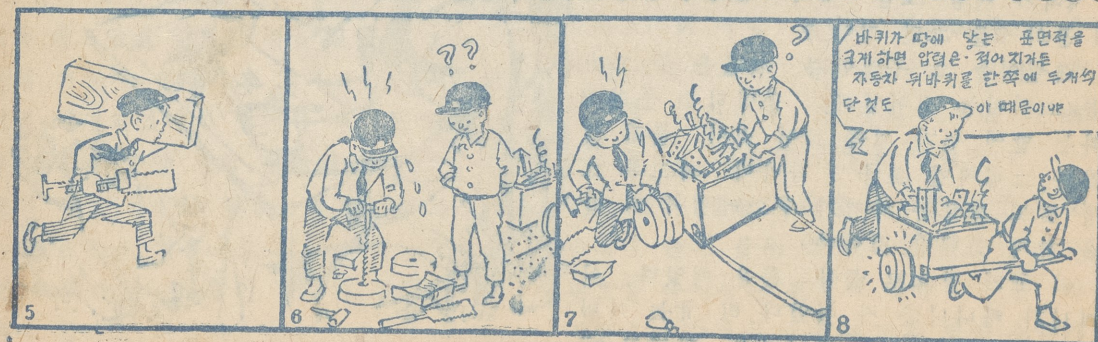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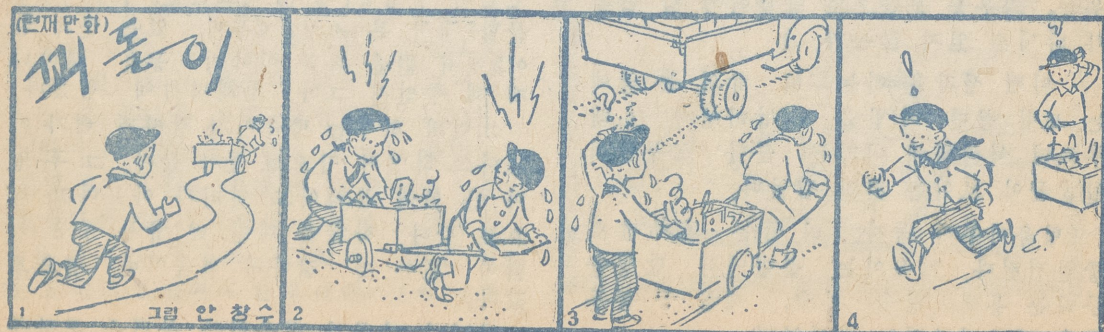
《3분의 2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셋으로 나눈 중의 둘이라는 말이야.》

《…》

리 규가 열성껏 설명을 하는데 대원이는 하품을 하며 졸기가 일수였다.

그럴 때마다 리 규는 《소년단》잡지에서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어 주군 하였다.

《김 일성 원수님은 학교에서 돌아 오시면 방을 깨끗이 쓸고 책상을 잘 정돈하고 학습장도 잘 정리하셨단다. 그리고 그 날 배운 것은 그 날로 깊이 알기 위해 힘쓰고 숙제 하나라도 미루는 법이 없었다지 않어.》

리 규가 책을 읽고 이런 말을 해 주면

대원이는 고개는 끄덕이지만 다시 공부에 달라 붙으면 또 졸군 하였다.

리 규는 자기가 대원이를 돕는 방법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어느 날 아침 어린이 방송 시간 때였다. 리 규는 뜻밖에도 6 개 고지에 대한 그림 현상 모집에서 대원이가 일등으로 당선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리 규는 처음에는 자기가 잘 못 듣지나 않았을가 하고 의심도 해 보았다. 그러나 대원이가 본래 그림에는 소질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만도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옳지, 대원이가 좋아하는 과목부터 이끌고 들어 가자!)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 리 규는 그를 도와 주는 방법을 고치기로 결심했다. 그 후 어느 일요일 리 규는 대원이와 함께 모란봉에 올랐다. 모란봉 기슭에 나란이 앉아 아름다운 평양시가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한 번 저 천리마 동상을 그려 볼가?》 리 규가 말하자 대원이는 좋아 했다. 리 규는 미리 가지고 갔던 화구를 펼쳐 놓았다. 그리고는 천리마 동상을 잘 그리기 위해 대원이와 같이 동상을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 놓고 그렸다.

《넌 아직두 못 그렸니?》

리 규가 아직 절반도 못 그렸을 때 대원이는 동상의 천리마 부분을 다 그린 그림을 내 보였다.

《야 넌 참 잘 그리는구나, 이담 화가가 되겠구나.》

대원이는 빙긋 웃고 말았지만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였다.

《네가 지금 그린 것이 천리마 동상의 5 분의 2를 그린 거야.》

대원이는 그 무엇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였다. 분명히 5 분의 2 라는 말에 귀가 띄뜩 트인 것이 틀림 없었다. 그렇지만 초중 1 학년이 되도록 그런 것도 모르는 자기가 부끄러워서 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리 규가 집으로 돌아 왔을 때였다. 어머니가 빠나나를 사 왔었다. 리 규는 어머니가 먹으라고 주는 빠나나를 가지고 대원이네 집으로 뛰여 갔다.

《지금 여기에 빠나나가 5 개 있지, 그중에서 3 개를 네가 먹고 2 개를 내가 먹으면 넌 5 분의 3을 먹고 난 5 분의 2를 먹는 것으로 된단다. 분수라는 게 이런 거지 뭐.》

《난 그런 걸 자꾸 어렵게만 생각했어. 이젠 알겠어.》

리 규는 그 후에도 실물을 가지고 그의 산수 학습을 도와 주었다.

드디여 대원이는 학기 말 시험에서 우등생이 되였다.

분단 열성자들의 도움으로 경식, 재호, 철식이도 모두 우등생이 되였다.

이리하여 리 규는 분단 열성자들과 손잡고 분단을 단합된 분단으로, 우등, 최우등생 분단으로 만들었다. 분단은 지난 4월 15일에 영예로운 《모범 분단》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집단과 동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힘 쓴 리 규 동무는 지난 해 6 월 영예롭게도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았다.

사회주의 조국의 영예를 떨친 우리 나라 빙상 선수들

—1963 년도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지난 2월 14일

1963년도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빙상 대표단 일행을 태운 려객기가 도꾜 하네다 비행장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다.

《야! 공화국기가 보인다.》

창'가로 내다 보던 우리 선수들은 저저마다 환성을 올렸다.

하네다 비행장 바람'벽에는 커다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비행장에는 수 백 명의 재일 동포들이 손에손에 우리 나라 국기를 들고 환영하려 나와 있었다.

우리 빙상 대표단이 비행장에 내리자 비행장에서는 환영 집회가 진행되였다. 환영회에서는 먼저 일조 협회 부회장인 센다 고레야가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부터 처음으로 문화 체육 대표단을 맞이한 것을 일본 인민은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어서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 상임 위원회 한 덕수 의장의 환영 연설이 있었는데 조국으로부터 온 대표들을 처음으로 맞는 재일 동포들은 모두 한 사람 같이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 있다고 하였다.

환영회에서는 일본 사회 단체 대표들과 재일본 조선 소년단 대표들이 수십 개의 꽃다발을 우리 대표들에게 안겨 주었다.

집회가 끝나자 재일 동포들과 일본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 선수들은 숙소로 향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빙상 대표단은 재일 동포들과 일본 인민들의 지성어린 환영을 받으면서 2월 16일 하꼬네 빙상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첫 친선 경기에 참가하게 되였다.

2월 15일 밤 제비 뽑기가 있었다.

《원쑤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과 같이 우리의 체육 명수 고 경희 선수는 500m 속도 경기에서 미국 선수하고 맞다 들게 되였다.

경기는 시작되였다.

우리의 체육 명수 고 경희 선수는 첫 스타트부터 미국 선수를 떨어뜨리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계속 앞장에 서서 달리였다. 그리하여 고 경희 선수는 47 초 5의 기록으로 미국 선수를 이겼다.

고 경희 선수가 미국 선수를 떨구고 결승점에 들어 섰을 때 대회장에 모인 재일 동포들 속에서는(관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 감격의 만세 소리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와 장내를 뒤흔들었다.

이튿날 진행된 남자 500 m 속도 경기에서 우리 강 진국 (남자)선수도 미국 선수와 달리게 되였는데 강 진국 선수 역시 미국 선수를 보기 좋게 떨구어 놓고 42 초 7이라는 기록을 냈다.

친선 경기에서 이처럼 조선 사람의 기개를 남김 없이 시위한 우리 대표단은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진행된 1963 년도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불굴의 투지와 완강성을 발휘하였다.

대회 첫 날 우리 나라 체육 명수 한 필화 선수는 쏘련 선수 인가 워로니나 선수와 함께 달리게 되였다.

쏘련의 워로니나 선수는 녀자 500 m 뿐만 아니라 1,500 m, 3,000 m 경기에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두 번이나 녀자 세계 선수권을 차지한 세계에 이름난 선수이다. 금년 대회에서도 그는 반드시 선수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던 선수였다.

우리 나라의 한 필화 선수가 경기장에 나섰다. 재일 동포들과 수천 명의 관중들은 가슴을 들먹이며 손에 땀을 쥐고 방금 벌어질 두 선수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신호총 소리가 하늘에 울렸다. 한 필화 선수는 스타트 첫 순간부터 앞서 나갔다. 워로니나 선수는 한 필화 선수를 앞서려고 있는 힘을 다 하여 그 뒤를 따라 달렸다.

그러나 세계에 이름난 워로니나 선수는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이은 억세고 강의한 우리 한 필화 선수를 따라 잡을 수 없었다.

한 필화 선수는 마지막까지 억센 투지와 훌륭한 기술을 발휘하여 46 초 8이라는 (세계 선수권 대회 기록을 0.7 초나 돌파한 신기록이다.) 훌륭한 기록으로 결승점에 들어 섰다. 순간 관중들 속에서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며 터져 나왔다. 워로니나 선수도 같은 기록으로 결승점에 들어 섰다.

이어 대회 기록계로부터 조선의 한 필화 선수가 먼저 들어 왔다는 소식이 마이크를 통하여 알려지자 장내에는 또다시 떠나 갈듯한 박수와 환성이 올랐다. 관중들은 영웅 조선의 딸 한 필화 선수의 불굴의 투지와 훌륭한 성과를 찬양하여 마지 않았다.

이 감격적인 광경을 눈 앞에서 보는 재일 동포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어리여 있었다.

500메터 경기에서 번개처럼 내달리는 우리 나라 체육 명수 한 필화 선수 (오른쪽)

일본의 방송원들은 《조선의 한 필화 선수, 혜성과 같이 나타남》하고 웨쳤으며 대회장에 모인 관람자들도 《조선 선수의 실력은 경이적(놀라웁다는 말)이다.》, 《금번 대회에서 조선 선수들의 대활약이 주목된다.》고 하면서 경탄하였다.

대회 기간 우리 빙상 대표단은 정말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 지냈다.

일본 각지에 있는 재일 동포들은 우리 대표단의 경기 성과를 축하하는 전보와 편지를 매일 수 없이 보내 왔다. 거리와 경기장에 우리 선수들이 나서기만 하면 재일 동포들은 저저마다 손을 잡고 사진이라도 한 장 같이 찍자고 하면서 우리 선수들을 에워 싸군 했다.

재일 동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흥분과 감격에 휩싸여 조선 민족으로 태여난 자랑과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공민된 것이 얼마나 영예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였다.

그러면서 이 번 경기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 선수들을 꺾은 것이 통쾌하다고 하면서 감격과·흥분에 못'이겨 눈물을 흘렸으며 우리 선수들을 붙잡고 놓을 줄을 몰랐다.

이렇듯 세계 빙상 선수권 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성과를 올린 우리 대표단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 밑에 날로 륭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세계에 남김 없이 시위하였다.

이 번 대회에서 다만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남조선 선수들이 우리와 함께 경기에 참가하지 못 한 것이였다. 이 번 경기에 참가할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일본에 갔던 남조선 선수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 정희 도배의 방해로 말미암아 끝내 경기에 참가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박 정희 도배들이 그 어떤 발악을 하더라도 남조선 체육 선수들이 북조선 체육 선수들과 함께 국제 경기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칠 그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하루 속히 미제를 몰아 내고 군사 정권을 뒤집어 엎고 조국을 통일시켜 남조선 인민들도 우리와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동시)

몇 형제나 또 늘가

우리 학교 뒤'들에
자리 잡은 저 집은
3 년 전에 일떠 선
토끼네 집

우리들이 먹이 들고
토끼사로 달려 가면
두 귀 쫑긋 토끼들이
인사하지요.

《끄바 7 개년 계획》활동으로
해마다 늘고 느는 토끼네 형제들
올해는 토끼네 식구
몇 형제나 또 늘가?

아버지, 어머니들 뒤를 따라서
소년단원 우리들이
정성 다해 기르는 토끼
해마다 식구가 늘어만 가요.

평남도 순천군 월포 중학교 단
김 단하

(련재 소설)

사라진 그림자

박응호　　　그림 양재혁

이상한 그림자

아침이다.

정전 후 갓 지은 교실에는 아직도 향긋한 송진 냄새가 풍겨 사뭇 아이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였다.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솔'잎을 뜯어다 마루'바닥에 먹여 거울처럼 반들반들하게 닦고 또 닦았다. 전쟁 기간 침침한 땅굴 교실에서 공부하여 온 아이들인지라 흰 벽에 유리창이 달린 으리으리한 새 교실은 둘도 없는 그들의 보금자리였었다.

이 날도 명길이는 일찌감치 학교에 나와 마루'바닥 닦기에 여념이 없였다.

동그스럼한 얼굴에 항상 지혜롭게 반짝이는 두 눈, 아기 같이 볼쏙 내민 도톰한 입술, 그런 데다 늘 방실방실 웃음'기를 담은 그의 얼굴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웠다. 그러기에 초중 1 학년 5 분단 아이들은 한결같이 명길이를 좋아했고 또 그의 말이라면 고분고분 들었다.

아이들은 그가 분단 위원장이 아닌 그전 날에도 항상 그와 묻어 다녔다. 큰 소리 한 번 칠 줄 모르는 데다 별로 뛰여 난 재주도 없는 명길이지만 어째서인지 아이들은 명길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 인정이 곱고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맨 먼저 발벗고 나서는 명길이의 착한 마음에도 있으려니와 보다는 무슨 일에서건 지혜롭고 척척 옳고 그른 걸 갈라 낼 줄 아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아이들은 언제부터인가 명길이더러 《척척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다. 때로는 그 밑에 《박사》라는 이름까지 덧붙이기도 했다.

어느 사이엔가 아이들이 모여 들어 명길이와 함께《하—나, 두—근》 소리까지 치며 마루'바닥을 닦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거의 마루'바닥을 다 닦았을 무렵 드르릉 교실문이 열리며 경팔이와 문일이들이 헐레벌떡 뛰여 들었다.

두 눈이 부리부리한 데다 키가 늘씬한 경팔이는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헤덤벙거렸다. 언제나 덤비기 잘 하는 경팔이여서 아이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경팔이는 교실에 들어 서자'바람으로 그 큰 눈을 홉뜨며 소리쳤다.

《애들아, 어제'밤 도깨빌 봤어…》

너무도 뜻 밖의 말에 아이들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일시에 경팔이를 쳐다 보았다.

《이 대포쟁이야! 세상에 도깨비가 어디 있어…》

한 아기가 어이 없다는듯 툭 내쏘았다.

그러나 이'새로 찍찍 침 잘 뱉기로 유명한 죽은깨가 다닥다닥한 문일이가 냉큼 나서며

《나두 봤단 말이야…》

하고 가슴을 내밀며 한 마디 했다.

경팔이의 그림자처럼 묻어 다니는 문일이는 언제나 경팔이가 한 말을 이런 식으로 증명해 나서군 하였다. 얼핏 보면 형과 아우 같지만 맘 쓰는 데는 문일이가 형'벌이다. 왜냐 하면 경팔이는 무슨 일이든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내뱉지만 문일이는 그걸 다시 리치에 맞게 척척 꾸며 댈 줄 알았기 때문이다.

문일이까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아이들은 일시에 호기심이 나서 두 아이를 에워 쌌다.

경팔이와 문일이는 좀 우쭐해져서 다음 얘길 기다리는 아이들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천천히 책보를 끌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몸이 달아서 빨리 이야기하라고 졸라댔다. 책보를 다 끌은 후에야 경팔이는 모자를 이마 우로 더 밀어 올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어제'밤 반에서 학습을 끝내고 돌아올 때야…》

경팔이는 흘끔 명길이를 쳐다 보았다. 밤마다 명길이네 집에서 공부를 하였던 것이다.

《관리 위원회 앞을 지날 때 열 시 치는 소릴 들은 뒤니까 10 분도 채 되지 않을 때야.》

문일이는 버릇 대로 아이들에게 경팔이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나섰다.

아이들은 더욱 바싹 두 아이께 오그라들며 거품을 불기시작한 경팔이의 입만 지켜 보았다.

명길이도 수상하다는 얼굴 표정으로 두 눈을 쪼프리며 경팔이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무슨 판단할 일이 있을 때면 의례히 하는 버릇이다.

경팔이는 아이들이 자기 말에 끌려 든 것을 알자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우리가 관리 위원회 앞으로 해서 갓 지은 축사 앞을 지날 때였어…거긴 여느 때도 어둔 데 아냐? 게다가 달도 구름 속에 들어 간 때였거든…》

《난 하마트면 축사 두엄 구뎅이에 빠질 번 했어…》

문일이가 또 맞장구를 쳤다.

《정말이야! 그래 내가 앨 붙잡았는데 바로 그 때였어…눈 앞으로 시꺼먼 그림자 하나가 휙 지나 가지 않겠어? 그게 어떻게도 빠른지 번개 같드란 말이야…그와 함께 마침 달이 구름에서 나왔지.》

경팔이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러며 겁에 질린 얼굴로 아이들을 휘 둘러 보았다. 문일이는 다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건 정말 눈 깜빡 할 새에 있은 일인데 문득 축사 담 모퉁이에 그림자가 비끼지 않겠니? 야 정말 무서웠어… 키가 담을 넘고 산귀신 같이 으시시 머리칼을 날리구…》

아이들도 겁에 질려 더욱 바싹 오그라들었다.

《그게 다야…우린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몰라…난 밤에 자지두 못 했어…

아침에 할아버지께 말했더니 할아버진 그게 도깨비라는 거야.》

경팔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여는 아이가 없었다. 어느 사이엔가 아이들은 명길이의 얼굴을 쳐다 보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싶은 얼굴들이였다.

명길이도 사뭇 흥분되여 한 동안 덤덤히 서 있기만 하였다. 여느 때 같으면 의례히 한 마디 했을 것이였는데 이 때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는 가끔 고개를 개우뚱거리며 여전히 두 눈을 쪼프린 채 있

였다.

《글쎄 도깨비 없다는 건 나두 아는데 우리가 봤으니 야단 아냐.》

문일이가 자못 모를 일이라는 듯이 명길이를 슬며시 쳐다 보았다. 퉁망이나 맞지 않을가 하는 지레짐작으로…

《그게 어디서 나오든?》

명길이가 경팔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경팔이는 흘끔 문일이를 돌아 보았다.

《사료실 쪽이지?》

《난 똑똑힌 못 봤지만…그 쪽이 비슷해…》

문일이가 어물어물 대답하였다.

《그래 어디로 사라졌다구?》

명길이가 좀 덤비며 물었다.

경팔이는 다시 문일이 쪽을 살피며

《축사 뒤쪽 정미'간 골목으로 빠졌어…》

하고 자신 없이 대답하였다.

《눈 홀림일 거야…나무 가지가 흔들거리는 걸 헛 보구선 뭘 도깨빌 봤다구.》

어떤 아이가 못 미더운 듯 한 마디 했다.

그러자 경팔이와 문일이는 기를 쓰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과 거짓말이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라고 고집을 썼다.

명길이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상학 종이 울렸다.

명길이가 자기 자리에 가 앉았다. 그런데 같이 앉는 천룡이는 이 날도 나오지 않았다. 하두 결석이 잦고 공부가 떨어져서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그를 명길이 곁에 앉히기까지 했다.

천룡이는 몇 달 전에 전학해 온 아인데 아버지는 폭격에 돌아 가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사는 아이였다. 어머니는 이 곳에 온 이후 곧 협동 농장에 들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명길이는 어떻거나 천룡이를 도와 주려고 애를 썼다. 본래 착하고 부지런한 데다 머리도 나쁜축은 아니였다. 그는 말이 적은 게 특징이였다. 그것은 집안이 그런 형편이기 때문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고 각별히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었다.

명길이는 어째서인지 종일토록 경팔이의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세상에 도깨비가 없다는 건 뻔한 일인데 그게 분명히 도깨비였을가? 아니면 사람일가? 사람이라면 키가 담정을 넘고 움직임이 번개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럼 그건 도대체 뭣일가?

생각은 꼬리를 물고 뱅글뱅글 머리 속을 맴돌이쳤다.

아이들은 어느 새 도깨비 이야기는 감감히 잊어버리고 웃고 떠들며 야단쳤다. 아이들이 달라 붙어 부인하는 바람에 경팔이와 문일이들도 더는 거기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공부가 끝나자 명길이는 곧바로 천룡이네 집으로 찾아 갔다.

천룡이네 집은 마을에서 유축진 곳에 있었는데 아담한 기와집이였다. 그 뒤로는 과수원이 있어 봄철에는 마치 꽃구름 속에 잠겨 있는듯 했다.

명길이가 작은 대문을 열고 들어 섰을 때 천룡이가 뜰안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천룡아!》

명길이가 반가이 소리치며 다가 갔다. 천룡이는 장작을 패다 말고 흘끔 명길이를 쳐다 보았다. 순간 그는 웬 일인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 하였다.

《이리 줘…내 좀 패 보자…》

명길이는 책보를 토방에 놓고 천룡에게서 도끼를 빼앗아 들었다.

천룡이는 굳이 말리였으나 명길이는 벌써 도끼를 검어쥐고 바싹 마른 참나무를 쩡쩡 패기 시작하였다.

천룡이는 명길이보다 두 살 맏이였지만 명길이의 말에 대해서는 늘 무겁게 대했다.

천룡이는 미안스러운 기색을 얼굴에 띄우며 주섬주섬 패 놓은 장작들을 한쪽에다 차근차근 쌓았다.

《왜 오늘도 학교에 안 나왔니?》

명길이가 장작을 패며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했다.

《좀 일이 있어서…》

천룡이는 입속 말로 중얼거렸다.

명길이는 더는 그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한참 장작을 패고 나니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배며 갈증이 났다. 명길이는 무심히 《물 있지?》하며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갔다.

천룡이의 낯'빛이 변했다. 그는 황급이

《명길아! 내 떠다 주께…》

하며 부엌으로 먼저 뛰여 들어 갔다. 이윽고 천룡이가 사발에 물을 떠 가지고 나왔다. 천룡이는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 명길이를 미안스런 낯'빛으로 어정버정 살폈다.

명길이가 천룡에게 그 날 배운 과제를 배워 주고 있을 때 천룡이 어머니가 들어 왔다.

나이 사십이 가까운 해말쑥한 얼굴에 몸'집이 늘씬한 천룡이 어머니는 아직도 청청한 젊은 녀인 같았다.

명길이가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꾸벅 인사를 하자 어머니는 금'이를 드러내 보이며 반가이 웃었다.

《네가 또 왔구나, 내가 나다니는 바람에 집안 일이 밀려 학교엘 못 보냈구나!》

어머니는 안 됐다는듯 자기가 먼저 이런 말을 꺼냈다.

명길이가 다시 천룡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웬 일인지 명길이와 천룡이의 얼굴을 번갈아 유심히 살피고 있였다.

사실 명길이와 천룡이의 얼굴은 어딘가 비슷한 데가 있었다. 둥그런 얼굴이며 시언한 이마, 마치 얼핏 보면 형제 같기도 했다.

천룡이 어머니는 그 전부터 어쩐지 명길을 볼 적마다 어딘가 천룡이와 비슷한 데가 있어서 세상에 남남이 이렇게야 비슷할 수 있을가? 하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학교에서도 가끔 이런 말을 들었다.

더우기 한 책상에 앉으면서부터 자주 그런 말이 나왔다.

공부가 필하고 명길이가 돌아 올 차비를 하다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천룡아! 경팔이랑 어제'밤 축사 쪽에서 도깨빌 봤다지 않어? 머리는 산귀신 같드래…》

그러자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손에 쥐였던 일'감을 떨구었다.

천룡이의 얼굴도 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명길이는 보지 못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리 석중

경수는 저녁마다 학습을 끝낸 다음 할아버지한테서 재미 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과처럼 되여 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엔 무슨 이야길 해 주시겠어요?》

《글쎄, 오늘은 옛'이야기보다도 더 재미 있는 것을 하나 해 줄가?》

《예, 예》하고 경수는 할아버지 옆에 바싹 다가 앉았습니다.

《경수야! 할아버지가 요즘〈소년 신문〉이나 〈소년단〉 잡지를 읽어 보니 례절이 바른 소년단원이 되라고 하는 기사가 많더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할아버지가 말에 대한 례절 이야기를 하나 할테니 들어 봐라.》

《말에도 례절이 있나요. 인사를 하는 것이 례절이지…》

경수가 혼자'말처럼 이렇게 말하자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면서

《하. 그러니까 례절을 제대로 못 지키지. 례절에서 옷차림과 함께 말이 아주 중요하다. 아무리 허리를 굽혀 인사를 잘했다 해도 말에서 례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허사란다.》하고 말씀을 이으셨다.

《말의 례절을 지키자면 먼저 웃어른들에게 반드시 경어 (존경해서 쓰는 말)를 써야 한다.

〈어만 어데 가나?〉

〈할만, 밥 먹어.〉 이런 것은 경어가 아니거든.》

《할아버지 그런 땐〈어머니 어데 가세요?〉, 〈할머니 진지 잡수십시오〉라고 해야지요.》

《옳다! 네 말은 아주 훌륭하다.

우리 말은 다른 나라 말보다 특별히 경어가 발달했다. 그런 점이 또한 우리 말의 자랑이다. 례를 든다면 〈할아버지가 잔다〉라고 하지 않고〈할아버지가 주무신다〉라고 한다든가 〈할머니한테 말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겠다〉라든가 〈할머니께 여쭙겠다〉라고 하는 것들과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는 동무들끼리 욕설을 하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 말할 때마다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나쁜 말'버릇이다. 〈새끼〉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란 말을 얕잡아서 하는 것이다. 본디는 〈짐승의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는 것은 개나 돼지 같은 짐승 새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놈의 새끼〉라든가 〈반동 놈의 새끼〉라고 욕할 수는 있지만은 동무들끼리야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겠니, 이런 습관은 당장 고쳐야 한다.》

《할아버지! 요전에 〈소년 신문〉에 〈말을 아름답게 하자!〉는 글이 실렸어요. 그래서 우리 분단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응. 그래? 너희들 분단은 참말로 모범적이구나!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소년 신문〉이나 〈소년단〉 잡지에는 훌륭한 이야기가 많이 실리는데 그런 것은 항상 독보도 하고 모임에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 모범을 본받아서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 뿐인 줄 아느냐. 그 외에도 별의별 버릇들이 많지. 아주 우스운 것을 하나 일러 줄테니 들어 보아라.

〈동수야! 나는 말이야 응이, 어제 말이야 응이, 우리 둘째 형하고 백화점에 가서 말이야 응이, 색종이랑 구레용이랑 책이랑 말이야 응이, 사 가지고 왔다.〉

이렇게〈말이야〉라든가 〈응이〉라는 쓸데 없는 군말을 자주 덧붙여서 말하는 버릇이 있다.》

《할아버지 저도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허…》 하고 웃으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래, 너도 그런 습관이 있지. 말'버릇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 자신은 흔히 모를 수가 있다.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 서로서로 그 나쁜 버릇을 고쳐 줘야 한다. 알겠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텐 어떤 나쁜 말'버릇이 있는지 말해 달라요. 빨리 고치게요.》

《음, 그래 말'버릇은 누구든지 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 방금 너는 할아버지한테 〈말해 달라요. 고치게요.〉라고 했다. 그 〈라요〉라든가 〈게요〉라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말'버릇이다. 어른한테 말할 때는 〈말씀해 주세요.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며칠 전에 뻐스'간에서 차장 누나가 〈빨리 타라요〉, 〈여기 앉으라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 조용히 남 몰래 친절하게 〈빨리 타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표준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일이 있다. 너희들도 선생님한테

〈옛말 하나 해 달라요.〉

〈영화 보러 언제 가나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 공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천격스러우냐?

〈옛말 하나 해 주세요.〉

〈영화 보러 언제 갑니까?〉

라고 하면 말이 얼마나 고상하고 좋으냐! 그렇지?》

《예, 정말 그래요!》

《저것 봐라! 또 〈정말 그래요〉라고 하네.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해야지.》

《아이, 정말!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버릇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이젠 조심하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야 한다. 그 밖에도 좋지 못한 말'버릇이 많다만은 그것은 또 다음날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만 하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 나야지.》

할아버지는 경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는 담배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경수는 할아버지의 이부자리를 펴 드린 다음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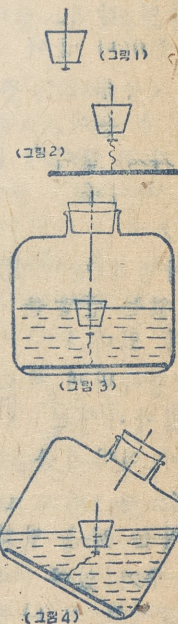
흥미 있는 과학 이야기

물 수준기 만드는 법

물 수준기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병마개처럼 생긴 나무쪼각에 그림 1과 같이 못을 박고 못대가리에 실을 맵니다. 다음에 유리병의 밑바닥 직경과 같은 길이로 된 양철판의 중심에 그림 2와 같이 실을 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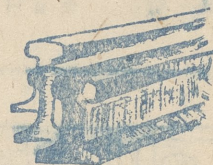
양철판과 못을 박은 나무쪼각을 병에 넣은 다음 물을 절반쯤 채웁니다. 그리고 병마개 중심에 쇠줄을 박고 병마개를 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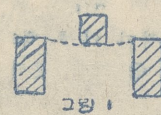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만든 물 수준기는 병마개의 못과 물 우에 뜬 나무쪼각의 못이 그림 3과 같이 일직선이 되여야 합니다.

사용법은 수평을 검사하려는 곳에 놓습니다. 이때 못이 쇠줄과 일직선이 되면 수평으로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못과 쇠줄이 서로 어긋나면 수평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왜 기차 레루는 《工》자 모양으로 만들었을가요?

기차 레루가 《工》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차 레루를 《工》자 모양으로 만들었을가요?

동무들은 먼저 이런 실험을 하여 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그림 1과 같이 놓고 그 우에 연필 같은 것을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종이는 곧 휠 것입니다. 이 번에는 그 종이를 《ㄱ》자 모양으로 접어 놓고 연필을 놓아 보십시오. 이 때 종이는 잘 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차의 레루도 이런 원리를 리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무거운 기차가 지나 가면 레루의 ㄱ 부분(그림 참고)은 휘여들려고 해도 ㄴ 부분이 휘지 못하게 받쳐 주며 또 ㄴ 부분이 휘려해도 ㄱ 부분이 넓게 힘을 받기 때문에 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레루의 ㄱ, ㄴ 부분의 길이, 넓이, 두터이 등은 기차의 무게를 계산하여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레루는 아무 쪽으로도 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블로크에는 왜 구멍을 만들었을가요?

우리는 건설장에 가 보면 어떤 블로크에는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블로크에다 구멍을 냈을가요?

동무들은 먼저 이런 실험을 해 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그림 1과 같이 놓고 그 우에 연필 같은 것을 놓아 보십시오. 이 때 종이는 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를 둥글게 해 가지고 그 우에 연필 같은것을 놓아 보십시오. 이 때 종이는 휘지 않을 것입니다.

블로크에 구멍을 낸 것도 이런 원리를 리용하여 무게에 견디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구멍 난 곳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로크로 지은 집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합니다. 또한 블로크가 가벼워서 운반하거나 건설하는 데 좋으며 많은 재료를 절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문)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귀여운 애기들을 기르는 보육원이랍니다.

우리 마을 양지쪽 언덕 우에는 아담하고 알뜰한 탁아소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남 먼저 이 곳으로 달려가지요. 여기서 보람찬 하루를 보내면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 젊어만 간대요. 아침마다 엄마 등에 업혀 오는 애들은 우리 어머니만 보면 생긋생긋 웃어 준대요.

행복한 요람 속에서는 애기들의 웃음꽃이 피여 난대요.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 있게 놀고 낮에는 폭신한 포단에서 오침을 하고 매일 간식을 준대요. 하루하루 몰라 보게 무럭무럭 자라는 애기들을 보는 우리 어머니는 기쁨과 자랑으로 넘친대요. 탁아소는 애기들의 웃음집이래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어릴 때는 울음으로 긴긴 하루를 보냈답니다. 어머니는 일곱 살까지 걷지를 못했대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글쎄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젖이라군 못 먹어 보았대요.

지주놈의 아들에게 어머니의 젖을 몽땅 빼앗기고 우리 어머니에겐 한 모금 못 먹였대요.

나는 지주놈들을 못 보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가 뿌드득 갈려요. 지주놈은 얼마나 악독하고 간악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젖 살이 올라 몽실몽실한 애기들의 귀여운 뺨을 만질 때마다 지난 날을 잊을 수 없대요. 그 악독한 지주놈들이 오늘은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서 활개치고 있으니 남조선 어린이들은 정말 불쌍해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자라나는 우리의 행복을 하루 속히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평양시 봉지 중학교 인민반
4 학년 리 일섭

꼬마 진료소

공부할 때 지켜야 할 위생

오늘 꼬마 진료소 의사는 신체 검사를 한 번 해 달라는 분단 위원장 영식이의 청을 받고 영식이네 분단에 나갔습니다.

꼬마 의사는 청진기를 귀에 걸고 차례로 들어 오는 소년단원들의 앞뒤 가슴을 골고루 짚어 보기도 하고 이마에 건 집사경을 번쩍이면서 소년단원들의 눈, 귀, 입속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모두 건강한 몸들이였습니다. 창수 차례가 되였습니다. 그런데 창수의 량 어깨박죽을 붙잡고 그의 자세를 곧추 세워 보면서 머리를 기웃거리던 꼬마 의사는 창수더러

《너 척추가 좀 구부러질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척추가?》 하고 창수가 놀라는 표정을 하자 꼬마 의사는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걱정할 건 없어, 이제라도 공부할 때 자세를 옳바르게 가지면 돼. 우리들의 뼈는 아직도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고 지금도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의 뼈는 유기 물질과 무기 물질로 되여 있단다. 그런데 나이 어릴수록 유기 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뼈는 쉽게 구부러진단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옳바른 자세를 하지 않고 오래 동안 공부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가 구부러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땐 가슴을 책상에 기대지 말구 가슴을 곧추 펴고 무릎은 직각으로 구부리구 머리는 곧바로 들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야 한단다. 한참 앉아 있으면 누구나 자연히 몸 자세가 달라진다. 그래서 가끔 자기의 앉은 자세를 바로 잡군 해야 하는 거야. 넌 앞으로 이걸 꼭 지켜야겠다.》

꼬마 의사는 이렇게 창수에게 찬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근시가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용남이는 가까운 데 것은 잘 보는데 먼 데 것은 잘 보지 못 하는 것이였습니다.

《넌 책을 읽을 때 눈에서 얼마만한 거리에 책을 놓고 읽군 했니?》

《한 15 Cm 거리에 놓구 읽군 했지.》

《전 왜 그렇게 코 앞에 놓구 읽니?》

《난 엎디여 책을 읽는 것이 제일 편안해. 그래서 집에서 복습할 때는 늘 엎디여 책도 읽구 글도 쓰군 했다.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할 때도 책을 가까이 놓구 공부하게 되더구나.》

《넌 집에 책상이 없니?》

《아버지가 아동 백화점에서 내게 마춤한 책상을 사다 준 것이 있지만 난 엎디여 공부하는 것이 좋아.》

《네가 근시가 된 것은 그 때문이다. 가까운 거리에 책을 놓고 읽거나 해질 무렵에 어두운 곳에서 글을 쓰거나 읽으면 근시가 된단다. 때문에 눈과 책이나 학습장 사이의 거리는 30~35 Cm 가량이 가장 적당해. 그리구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는 25~30 분 간 계속한 후에는 잠시 동안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 휴식을 해야 한단다. 눈의 피로를 푸는 데는 푸른 하늘을 멀리 바라 보는 것이 좋단다. 그리고 넌 엎디여 공부하는 그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엎디여 공부하게 되면 가슴을 누르기 때문에 심장과 폐장을 압박하게 된단다. 그래서 나중엔 호흡 기관(기관지, 폐 등)이 나빠진다.》

꼬마 의사는 이렇게 용남이가 고쳐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끝낸 꼬마 의사는 전체 동무들에게 책장을 뒤질 때 손'가락에 침을 바르느라고 입술이나 혀 끝에 가져다 문지르는 버릇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손은 항상 여러 가지 물건을 만지기 때문에 손이나 책장에 묻었던 병균 또는 기생충 알들이 이런 때 우리들의 몸에 들어 가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앞으로 꼬마 의사가 가르쳐 준 대로 공부할 때 지켜야 할 위생을 잘 지켜 나가리라 마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백리'벌에 깃든 눈물겨운 이야기

① 고개 넘어 내를 건너 두메산 기슭 지나 일곱 살 나는 소녀 하나 타박 타박 끌려 가고 있네.

웬 사나이한테 끌려 가는 소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가? 먹이지 못 하는 아픔, 입히지 못 하는 아픔, 참을 길 없어 어머니는 애 없는 집에 딸을 보냈더니 설마 그럴 줄을 그 누가 알았으랴. 딸애는 가엾게도 심천 지주놈에게 팔려 가게 되였네.

② 악착한 지주놈은 불쌍한 소녀를 마소처럼 때리며 부렸네. 겨울이면 삼 나이, 봄이면 담배 밭 물 주기, 여름이면 부대밭 김 매기.

새벽이면 새'별보다 먼저 일어나 소, 돼지 여물을 끓였네.

③ 소녀의 이름은 보비, 보비는 그 어느 하루도 눈물 없이, 매 없이, 설음이 없이 지난 날이 없다네.

하루는 박우물을 긷다가 산'짐승에 놀래여 물'동이를 깨였네. 지주놈의 마느라와 지주놈의 딸년이 어찌 이를 보고 참자코 있었으랴, 보비는 머리채 뜯기고 모진 매 맞으며 쓰러져 울었네.

④ 간신히 일어난 보비, 박우물 돌 우에 앉아 슬피 울며 생각했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험악한 가시밭 벗어 나야 한다고, 이를 악문 보비 정처 없이 허둥지둥 밤'길 옮겼네. 그러나 어느 새 뒤쫓아 온 지주놈 보비의 뒤'덜미 잡아 끌었네. 간악한 지주놈은 《망아지 값》에 사온 보비, 그러다 놓치겠다고 이번에는 《중소 값》에 팔아 넘겼네.

⑤ 눈물로 넘은 원한의 고개 눈물을 뿌리며 다시 넘은 보비, 강동땅 송가리에서 사람잡이하는 왜놈의 경찰 특무 《기무라》놈에게 팔려 와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설음과 눈물로 또 한 해를 보냈네.

⑥ 산에 들에 살구꽃, 복숭아꽃 만발한 봄이 왔네. 돈 있고 세도 있는 집 자식들은 새옷 입고 어머니 손에 끌려 학교로 가건만 아홉 살 봄을 맞은 보비는 다시 《큰소》값으로 팔려 가네. 그에게 봄은 언제 오려나, 그의 꽃망울 언제 피려나.

푸른물 출렁이는 남강 기슭 100 리'벌 아흔 아홉'간 지주집 2 중 대문이 범아가리처럼 보비를 삼켰네

⑦ 한간 넘은 늙다리 황 지주의 몸'종이 된 보비, 여름엔 하루 종일 부채질 했어도 조금만 바람 약하면 지주놈은 매질을 했네. 한 겨울날 배형겊으로 밟은 숭늉에 보일락 말락한 밥티가 있다고 트집 잡은 황 지주 보비의 이마에 숭늉그릇 내던져 선지피 흐르게 하고는 맨발로 눈 얼음 우에 내다 벌을 세웠네.

⑧ 100 리'벌에 도사리고 앉은 고래'등 같은 아흔 아홉'간 짜리 기와집에 매일처럼 왜놈들 불러 들여 징그러운 풍악소리 울리며 술상 벌렸네.

《강동 군수》께 술 먹이고 공출을 안 내고 경찰들께 술 먹이고 농민들의 재산 빼앗아 더욱 배를 불렸네.

⑨ 황 지주놈은 15 마리의 개를 기르며 끼마다 고기'이밥 먹이면서도 보비에게는 일하지 않으나 누룽지도 아깝다 먹이지 않았네. 굶으며 앓는 보비 불쌍하여 식모하는 장손 어머니 치마폭에 몰래 싸다 준 누룽지 앞에 놓고 보비는 목메여 울었네.

⑩ 징얼 박은 황 지주놈 갓신 소리에 보비 소스라쳐 깨여났네. 《이년 응달 아래 개팔자구나, 발을 좀 다친 것 가지고 들어 누워 있어.》 퉁퉁 부은 보비의 발'등 걷어차며 호령 또 호령, 아픔을 이기지 못 하여 울음 터뜨린 보비를 곰 같은 황 지주놈 엄살을 부린다고 또 걷어찼네.

보비는 아픈발 절룩이며 일하지 않으면 안 되였네.

⑪ 머슴살이에 멍이 든 장손 어머니, 앓아 누운 때도 황 지주는 밥을 주지 않았네.

보비 저녁마다 죽그릇 들고 장손 어머니 찾아 갔건만 장손 어머니의 병은 더해만 갔네.

《보비야, 내 마지막 부탁이다. 수도간에 나가면 오이가 많단다. 시원한 오이가 먹고 싶고나…》 보비가 지주놈 몰래 오이 하나 들고 들어 왔을 때 에그머니 세상에 이런 일 또 있을가? 장손 어머니는 황 지주놈 저주하며 고르롭지 못한 세상 원망하며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네.

⑫ 장손 어머니 세상 떠난 뒤 황 지주는 여덟 살 난 장손이를 머슴으로 부렸네. 어느 날 어린 장손이 뒤'마당 쓸다 땅'바닥에 떨어진 도마도 한 개 주었는데 갑자기 《이놈 도적질 하겠으면 당장 나가라.》 황 지주놈의 독수리 같은 손아귀 장손이의 목덜미 틀어잡고 옷을 훌딱 벗겨서 대문'간으로 내 쫓는데 생쥐 같은 황 지주놈의 아들 장작개비로 장손이를 갈겼네. 어머니도 장손이도 이렇게 지주놈에게 목숨을 빼앗겼네.

⑬ 지루한 밤이 가고 이 땅에 새 아침이 밝았네, 해방이 왔네.

당의 따사로운 해'빛이 시들었던 열 여섯 살 보비에게 봄'별을 안겼네.

머슴의 멍에 벗어 던진 사람들, 지주의 쇠사슬 끊어버린 사람들 노한 파도 같이 일어나 지주놈 족치고 새납 울리며 북소리 둥둥 노래하며 춤추네. 3,000 평의 땅 분여 받아 땅의 주인이된 보비 남 부럽잖게 새 살림을 꾸렸네.

⑭ 지금 평양시 승호구역 승호동 녀맹 위원장으로 학교에 다니는 정숙이와 경숙이 두 딸 데리고 행복한 살림을 누리고 있는 장 보비 어머니 우리들에게 지난날의 이야기 이렇게 말했다네.

《너희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런 길을 걸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어머니보다 더 따스한 사랑을 베푸시는 당과 수령님을 모셨기에 행복하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호의 계속)

㊳ 길동이는 어느 날 영웅 호걸들을 모이게 하고 섭천 해인사를 치자는 것을 제기하고 그 까닭을 밝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농민이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농민들을 돕고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농민들을 못 살게 구는 관리배와 부자놈들을 쳐야 한다.

해인사 중놈들은 농민들을 못 살게 구는 원쑤다. 그 곡간에는 수만석의 옥백미가 썩어 나고 있다.》 농민들은 죽도록 일하고도 살 수 없는데 중놈들은 일 년내 가만히 앉아서 망탕 먹고 입고 살아 간다.》

영웅 호걸들은 길동이의 말을 채 듣지 않고 한 사람 같이 일어서서 당장에 중놈들을 박살 내자고 웨쳤습니다.

㊴ 길동이는 영웅 호걸들을 겨우 진정시키고 나서 《내 그 절에 가서 동정을 살피고 올 것이니 대기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길동이는 해인사를 정찰하기 위해 재상집 자식으로 변장하였습니다.

옥색 도포에 검정색 띠를 띠고 가뿐히 나귀를 타고 네댓 명 《하인》이 따르게 하였습니다. 도화동 영웅 호걸의 대장 길동인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㊵ 길동이는 해인사에 도착하자 《하인》을 시켜 주지(절의 주인)를 불러 오게 하였습니다.

차림이 재상집 자제라 주지는 공손히 절을 합니다. 길동이는 천연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듣거라. 나는 서울 홍 판서댁 자제다. 이 절에 글'공부를 하러 왔다. 래일 백미 이백 석을 보낼터이니 음식을 정히 차리여 너희들도 함께 먹게 하라.》

《황송하옵을 아뢰오.》

주지는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합니다. 하인으로 변장한 영웅 호걸들은 그 동안 해인사를 샅샅이 정찰하였습니다.

㊶ 정찰을 해 가지고 돌아 온 길동이는 래일 오전중으로 쌀 이십 석이 해인사에 가 닿도록 명령하고 나서 영웅 호걸들을 모여 놓고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웅 호걸 치백은 군사 백 명을 거느리고 오늘 밤으로 출발하여 해인사 뒤 <솔이 봉우리> 밑에 매복할 것, 영웅 호걸 흥갑은 군사 열 명을 하인으로 변장시켜 래일 아침 나를 따르게 할 것, 영웅 호걸 광업은 가장 힘센 군사 백 오십 명을 거느리고 래일 아침에 떠나 점심 전으로 해인사 입구 동쪽 너럭 바위까지 닿도록 할것.》

㊷ 이튿날 길동이는 새벽녘에 도화동을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산'길을 타고 가는 것이 마치도 구름을 타고 가는 것만 같아서 일행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아니 가서 동이 트기 시작하였고 해가 솟았습니다. 길동은 안개 속에 아직도 잠자고 있는 산 아래 고래같은 건물을 가리키며 바로 저것이 해인사라고 말하였습니다.

《걸음이 아무리 잰 사람이라도 한나절은 걸릴 데가 아닌가!》

일행은 길동이가 축지법을 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㊸ 길동이는 하인으로 변장한 영웅 호걸 흥갑이에게 임무를 주어 해인사에 먼저 내려 보낸 다음 숲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치백이 일행을 찾아서 분부하였습니다.

《반항하는 중놈 이외의 사람들에겐 절대로 손대지 말 것, 백성들에게서 앗아 낸 곡식과 재물은 모두 빼앗을 것, 일체 건물과 나라의 귀중한 재물을 소중히 할 것, 빼앗은 곡식과 재물을 해인사 아래 너럭 바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웅 호걸 광업이 일행에게 날라다 주고 즉시로 오던 산'길을 타고 저녁에 도화동에 도착할 것》

길동은 그 길로 영웅 호걸 광업이에게 찾아 가서 《치백이 일행이 날라 오는 량곡과 재물을 받아 가지고 밤 열 시까지 도화동에 도착할 것》을 분부했습니다.

㊹ 길동이 일행을 돌아 보고 산우로 돌아 왔을 때 거기에 남아 있던 일행은 푹 쉬라고 해서인지 드릉드릉 코들을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마다는 미소를 띠고 있으며 희망에 차 있는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참 사람들이로구나! 이런 사람들이 갖은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자기 향토에서 쫓겨 나고 부모 처자를 거느리지 못 하며 《도적》이라는 이름을 쓰고 살아 가다니, 기막힌 세상이로다.》

이렇게 생각하니 길동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길동은 두 주먹을 부르쥐고 멀고 먼 북쪽 고향 산천을 바라 보며 마음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어머니! 참사람, 참세상을 위하여 오늘 첫 싸움에 성공하겠습니다.》

㊺ 길동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산에서 내려 해인사에 도착한 것은 정각 열 두 시였습니다. 주지는 중들을 거느리고 공손히 길동이를 맞이하여 방으로 모시였습니다.

《내 보낸 쌀로 음식이 부족하지 않더뇨?》

하고 길동은 주지에게 물었습니다. 주지는 허리를 굽히며

《어찌 부족하리이까. 너무 황송하고 감사 하외이다.》하고 뜰에 기다리고 서 있는 중들에게 곧 상을 올리라고 소리 쳤습니다.

㊻ 길동이는 약속 대로 여러 중들을 일제히 청하여 각각 상을 받게 하고 차례로 술을 권하고 자기 상에만 특별히 차려 놓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들은 더욱 황송하고 감사하여 머리를 들지 못 하였습니다.

길동은 가만히 모래를 입에 넣고 깨물었습니다. 아작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주지는 물론 그 밖의 중들도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음식을 먹는 체 하고 있던 흥갑이를 비롯한 《하인》들도 죄송한 듯이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길동은 노발대발 해 가지고 《너희들이 어찌 음식을 이다지도 부정하게 하였는고? 이는 나를 멸시하고 홍판사댁을 넘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하고 하인들에게 중들을 묶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㊼ 흥갑이 이하 《하인》들은 달려 들어 중들 모두 한줄에 묶어서 꿇어 앉히였습니다. 흥갑이는 밖으로 나와 미리 마련해 두었던 신호의 붉은 기폭을 내흔들었습니다. 바람과 같이 수림을 헤치고 영웅 호걸 치백이 일행이 내달아 창고 문을 열고 곡식이며 재물들을 광업이 일행이 기다리고 있는 절 아래 너덕 바위로 날랐습니다.

㊽ 이 날 합천 고을에 가서 장을 봐 가지고 돌아 오던 중이 고개턱에서 이 일을 보고 즉시 원에게 알렸습니다. 원은 관군을 출동시켜 곧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험한 산'길을 타고 감쪽 같이 자취를 감춘 도화동 영웅 호걸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㊾ 그 날 밤 늦도록 도화동에서는 첫 싸움의 승리를 경축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 마당에서 치백이, 흥갑이, 광업이 등 여덟 사람이 장수로 뽑히고 백 여덟 명이 영웅 호걸로 뽑히였습니다. 그 날 밤 잔치 마당에서는 또한 《활빈당》(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당)이 조직되고 길동은 그 항수 (두목)로 되고 여덟 장수는 조선 팔도를 하나씩 맡아서 일하기로 되였습니다.

《활빈당》 항수 길동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첫째, 지주나 관리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모은 재물을 빼앗고 가난한 인민들을 구제한다.

둘째, 인민들의 재산을 털끝만치도 다치지 못 한다.

세째, 나라의 재산을 털끝만치도 다치지 못 한다.

㊿ 하루는 길동이 여덟 장수를 모이게 하고 앞으로 할 일을 토의하였습니다. 길동은 자기가 도화동에 들어 올 때 갈림'길에서 만난 로인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가난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서 《도화동》과 같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는 무리가 산과 들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웨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화동 좁은 굴 속에 다 모두 받아 들일 수는 없소. 조선 팔도를 도화동과 같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오. 그러자면 우리들이 《활빈당》의 기'발을 높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 가 그들을 돕고 간악한 부자놈들과 관리놈들을 쳐야 하오.》

《옳은 말씀이요.》

하고 여덟 장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 고향, 자기가 맡은 도에 보내 달라고 나섰습니다.

51 모임이 있은 때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인민들의 살림을 알아 보기 위하여 팔 도에 파견했던 여덟 장수들이 돌아 왔습니다.

길동은 여덟 장수들에게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전라도 백성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물고 홍수가 나고 해서 흉년이 든 데다가 전라 감사(도의 책임자)가 악독하게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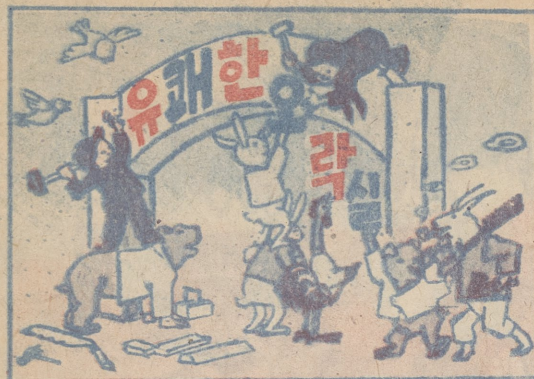
치백이한테서 전라 감사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길동이는 치를 떨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여덟 장수가 함께 전라 감사를 치고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뗑! 뗑! 뗑!》 종이 났습니다.

길동이 있는 집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어린 파학자》 놀음 ☆

이 놀음은 자기가 학파에서 배웠거나 파외 독서를 통해 얼마나 파학 지식을 알고 있는가를 실험해 보는 유희이다.

이 놀음을 통해 배운 지식을 깊고 넓게 하며 또 많은 새로운 파학 지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노는 방법—유희자들은 빙 둘러 앉는다. 유희자 중에서 물리, 수학, 화학, 생물 등 자연 파학 파목에 가장 공부를 잘 하는 동무가 유희 책임자로 된다.

유희 책임자는 물리, 수학, 화학, 생물학 등에서 임의의 문제를 낸다.

례를 들면 물리에서 《마찰 현상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하시오.》 라던가 《관성 현상에 대하여 말하시오》 또는 식물학에서는 《종자의 번식 방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하시오》 등등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많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대는 동무가 승리한다.

문제는 될수록 우리의 생활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깊이 끌고 들어 가는 것이 흥미가 있다.

독자들에게

봄은 우리들을 산과 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조국의 봄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요, 동무들은 봄철 자연의 변화 속에서 어떤 것을 보고 느꼈습니까?

금년 이른 봄부터 지금까지 봄철의 자연 속에서 자기가 관찰한 것들 중 남보다 먼저 본 것을 두 가지 이상 적어 보내십시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먼저 관찰했는가를 간단히 써 보내 십시오.

춤추는 기'발

요술사가 유리병 한 개를 들고 속이 비여 있다는 것을 관중들에게 보여 준다. 또 짧은 대가 달려 있는 수기를 들고 보통 수기임을 보여 준다.

다음엔 수기를 꽂고 막대기로 《엣!》하고 탁자를 치면 수기는 병에서 오르내리며 춤을 춘다.

잠시 후 요술사가 또다시 《엣!》하고 소리치면 춤추던 수기는 멎는다.

※ ※

그림과 같이 수기'대 밑에는 가는 흑색 실이 달려 있다. 이 실의 끝을 무대 뒤에서 다른 동무가 쥐고 있다가 요술사의 《엣! 엣!》 하는 소리에 맞추어 당겼다 놓았다 한다.

붉은기발

가는 검은실

☆ 4호 현상 문제 ☆

☆ 거리 구경

영남이는 승용차를 타고 거리 구경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나 간 길을 되돌아 오지 않고 빠짐 없이 구경하고 돌아 올 수 있을가요.

☆ 누가 먼저 베여 낼가의 해답

18	15					
17	16					
8	6	28	12	22	10	8
29	13	18	20	18	24	18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3년 제 4 호 (총 16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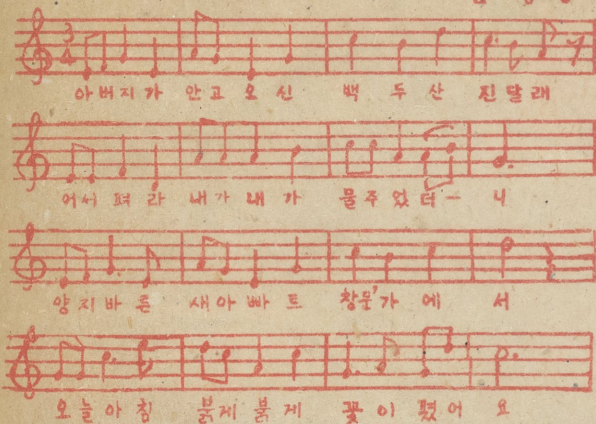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330182 값 25 전

백두산 진달래

(소년 독창곡)

김정태 요
김영창 곡

2. 집안 가득 빛을 뿜는 백두산 진달래
우리들이 빨찌산 애길 했더니
꽃도 듣고 그때 일이 생각 나는지
너무 기뻐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3. 봄 오기만 기다리던 백두산 진달래
원수님이 꽃동산을 펼쳐 주시니
창 밖에선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자랑스레 활짝활짝 피어 났어요

그림 안 창수

⑱ 그들은 재빨리 안전 스위치를 눌렀다. 밖에서 관측할 수 있게 만들었던 기구는 용수철 작용으로 대기 비행선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기구는 위험속에서 벗어났다. 사방에서는 룡권 현상으로 올라갔던 물이 떨어진다.

용남—앗,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고 있구나.

철웅—그건 우리가 방금 겪은 룡권 현상때 바다' 물이 공중에 말려 올라 올때 께묻어 올라왔던 고기가 떨어지는거야.

용남—룡권 현상이란 굉장한 힘을 가졌구나.

철웅—큰 룡권 현상일때는 수십톤의 고기가 저렇게 하늘에 올라왔다 떨어진단다.

⑲ 그들이 계속 수평 비행을 할 때였다.

용남—갑자기 하늘에서 얼음덩이가 쏟아지는구나.

철웅—지금 우리 머리 우에 있는 구름이 갑자기 차진 모양이야.

용남—그럼 그 구름속에 들어가 보자.

⑳ 그들은 얼음덩이가 내리는 구름속에 들어갔다. 온도계는 구름속 온도가 령하 9도라는 것을 가르킨다. 그들은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해본다. 콩알만큼씩이나 되는 얼음덩이들이 구름속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니 주먹만큼씩하게 커지더니 아래로 떨어져간다.

철웅—이건 농업에 피해를주는 우박이야 큰 우박은 0.5kg 씩이나 된단다. 더 내리기전에 빨리 지상에 알려야겠어.

용남—[illegible] 왜 땅에 떨어지는 얼음덩[illegible]작을가?

철웅—그건 얼음덩이가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에 녹으니깐 그렇지.

㉑ 그들은 우박을 형성하는 구름을 비구름으로 만드는 특수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구름속에 사격했다. 그러자 삽시간에 비가 쏟아졌다

철웅—우리가 만든 기구는 우박을 녹여 저렇게 비가 되게 하거든.

용남—우박이 비가되니 농사에 피해를 안주니 좋구나.

㉒ 그들은 비행을 계속했다.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태산같은 검은 구름이 밀려왔다. 기구는 삽시간에 검은 구름속에 들어갔다. 구름안은 그믐밤 같이 캄캄하여 앞을 알 수 없었다. 적외선 테레비죤 영사막에는 구름 두터이가 8km란 것이 나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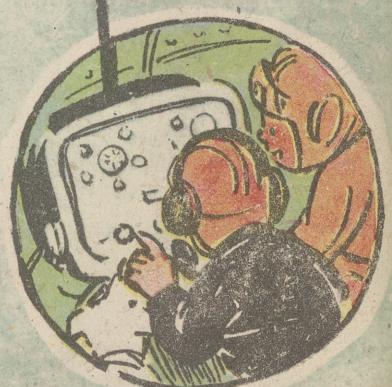
철웅—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탐조등을 켜자.

용남—야 여긴 바람이 심하구나

철웅—이건 바람의 폭이가 10km나 되는 태풍이야, 지금 바람이 일초동안에 70m씩 불고 있어.

용남—굉장한 바람이 구나 그런데 태풍은 왜 생기니?

철웅—그건 태평양 상공에서 생기는 저기압 (태평양의 열에 의하여 가열된 공기가 우로 올라 가고 그 자리에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의 한가지야

용남—위험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 자.

㉓ 용남—태풍이 갑자기 불어 온다는 것을 땅 우에 알리는게 어때.

철웅—응 그래.

그들은 전보를 친다. 무전을 받은 용남이가

용남—평양 기상대에서 감사하다는 전보가 왔어!

그들은 기뻐한다.

㉔ 철웅— 왜 기구가 올라 가지 않고 자꾸 내려 가는것 같을가? 앗, 공기 함정에 빠졌구나.

용남—앗.?